

수능특강

국어영역 | 언어와 매체

정답과 해설

1부 | 교과서 개념 학습

1강 언어와 매체의 본질

본문 9~11쪽

문제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 01 ㉠, ㉢, ㉡
- 02 쌍방향, 복합 양식성, 해시태그

01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 (가)는 '월간 함께 여행 3월 호'로 미루어 보아 월간 잡지의 글이다. 따라서 (가)는 월 1회라는 정해진 주기에 따라서 생산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나)와 같은 누리 소통망(SNS) 게시물의 생산에는 별도의 정해진 주기가 없다.

㉢ (가)는 인쇄되어 유통되는 잡지의 글이므로 생산되어 독자에게 전달되는 시간이 (나)의 게시물에 비해서 오래 걸린다.

㉡ (나)의 게시물은 인터넷을 매개로 사람들에게 공유되므로 인쇄물을 통해 공유되는 (가)에 비해 공간적 제약을 덜 받는다.

02 뉴 미디어의 특성

- (나)의 네 번째 화면을 보면 생산자인 '버터 좋아'가 수용자인 '꼬막꼬막'의 댓글에 대해 '사진 수정해서 다시 올렸습다.'라고 답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당 매체 자료의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나)의 세 번째 화면을 보면, '강아지랑'이 게시한 게시물이 영상, 배경 음악, 글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게시물을 통해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을 확인할 수 있다.
- (나)의 첫 번째 화면을 보면 '#소담시_여행'이라는 해시태그를 활용해서 해당 해시태그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들을 찾아서 한 번에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해시태그는 필요한 정보를 한 번에 모아 볼 수 있게 해 주므로, 해시태그를 통해 사용자가 비교적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강 국어의 탐구와 활용_01 음운

본문 15~16쪽

문제로 이해하기 1 예시 답안

- 01 (1) 사슴
(2) 사슴, ㄹ
(3) 사슬, 서슬, ㅌ
(4) 구슬, 구실, ㄹ
- 02 (1) '이'가 형식 형태소이므로 앞 음절의 끝 자음을 그대로 연음해야 하는데, 'ㅌ'으로 바꾸어 연음했기 때문이다.
(2) 'ㅎ'과 'ㄱ'을 합쳐 거센소리 'ㅋ'으로 바꾸어 발음해야 하는데, 'ㅎ'을 탈락시켜 발음했기 때문이다.

03

㉠ 교체	(1), (3), (6)
㉡ 첨가	(5)
㉢ 탈락	(2)
㉣ 축약	(4)

01 최소 대립쌍

- (1) '가슴, 사슴'의 최소 대립쌍에서 뜻을 구별하게 하는 음운은 'ㄱ, ㅌ'이다.
- (2) '사슴, 사슬'의 최소 대립쌍에서 뜻을 구별하게 하는 음운은 'ㅌ, ㄹ'이다.
- (3) '사슬, 서슬'의 최소 대립쌍에서 뜻을 구별하게 하는 음운은 'ㅌ, ㄹ'이다.
- (4) '구슬, 구실'의 최소 대립쌍에서 뜻을 구별하게 하는 음운은 'ㄹ, ㄹ'이다.

02 국어의 음운 변동

- (1) '이'가 형식 형태소이므로 'ㅌ'을 제 음가대로 연음하면 되는데, 'ㅌ'으로 바꾸어 연음했기 때문이다.
- (2) 'ㅎ'의 'ㅎ'과 'ㄱ'을 축약하여 거센소리 'ㅋ'으로 발음해야 하는데, 'ㅎ'을 탈락시켜 발음했기 때문이다.

03 국어의 음운 변동

- (1)에서는 된소리되기(교체)가 일어난다.
- (2)에서는 자음군 단순화(탈락)가 일어난다.
- (3)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교체)이 일어난다.
- (4)에서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난다.

- (5)에서는 ‘ㄴ’ 첨가(첨가)가 일어난다.
- (6)에서는 유음화(교체)가 일어난다.

2강 국어의 탐구와 활용 ② 단어

본문 23~24쪽

문제로 이해하기 2 예시 답안

01

형태소	도	ㅁ-	-아	보-	-이-	-었-	-다
(1)	ㅁ-, 보-						
(2)	도, -아, -이-, -었-, -다						

02

- ㉠ 부사, 격 조사와 결합할 수 없고 용언을 수식한다.
- ㉡ 동사, ‘계속 유지하다.’의 뜻을 지니고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활용할 수 있다.
- ㉢ 형용사, ‘소유하다.’의 뜻을 지니고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활용할 수 없다.

03

- (1) 관형사인 어근과 명사인 어근이 결합하여 합성 명사가 만들어졌음.
- (2) 형용사의 어간인 어근에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부사가 파생되었음.
- (3) 부사인 어근과 부사인 어근이 결합하여 합성 부사가 만들어졌음.
- (4) 부사인 어근에 접미사 ‘-대다’가 결합하여 동사가 파생되었음.

01 형태소의 종류

‘ㅁ아’는 어간과 어미로 분석할 수 있으며, ‘보였다’는 어간, 접미사,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로 분석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어간 ‘ㅁ-', ‘보-’는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이다. 또한 조사 ‘도’, 어미 ‘-아’, ‘-었-', ‘-다’, 접미사 ‘-이-’는 형식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이다.

02 품사의 특성

‘오늘의 날씨를’의 ‘오늘’은 명사이고, ㉠ ‘오늘’은 부사이다. ㉡ ‘오늘’은 격 조사와 결합할 수 없고 용언을 수식한다는 점에서 부사에 해당한다. ㉢ ‘있다’의 기본형 ‘있다’는 ‘사람이나 동물이 어떤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의 뜻을 지니는 동사이며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다. ㉣ ‘있다’는 ‘어떤 물체를 소유하거나 자격이나 능력 따위를 가진 상태이다.’의 뜻을 지니는 형용사이며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03 합성어와 파생어 분석

‘칫머리’는 합성 명사로 어근 ‘칫’과 어근 ‘머리’가 결합하여 이루어졌고, ‘칫’과 ‘머리’는 각각 관형사와 명사이다. ‘같이’는 어근 ‘같-’과 접미사 ‘-이’가 결합한 파생어이며 품사는 부사이다. 이때, ‘같-’은 형용사 ‘같다’의 어간이다. ‘곧바로’는 어근 ‘곧’과 어근 ‘바로’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곧’, ‘바로’, ‘곧바로’ 모두 부사로 쓰인다. ‘콜록대다’는 어근 ‘콜록’과 접미사 ‘-대다’가 결합한 파생어이며, 품사는 동사이다. 또한 ‘콜록’의 품사는 부사이다.

2강 국어의 탐구와 활용 ③ 문장

본문 31~32쪽

문제로 이해하기 3 예시 답안

01

- ㉠ 한 자리 서술어
- ㉡ 부사어, 두 자리 서술어
- ㉢ 목적어, 두 자리 서술어

02

- ㉠ 명사절, 주어
- ㉡ 관형사절, 주어
- ㉢ 관형사절, 목적어

03

- ㉠의 예문: ㉡
- ㉡의 예문: ㉢
- ㉢의 예문: ㉠

01 문장 성분

㉠의 ‘돌다’는 ‘기능이나 체제가 제대로 작용하다.’의 뜻을 지니며 주어만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의 ‘돌다’는 ‘방향을 바꾸다.’의 뜻을 지니며 주어 이외에 ‘골목 쪽으로’와 같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의 ‘돌다’는 ‘무엇의 주위를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다.’의 뜻을 지니며 주어 이외에 ‘나무 주위를’과 같은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02 안은문장

㉠에는 명사절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기’가 안겨 있으며, 주어 ‘우리가’가 생략되어 있다. ㉡에는 관형사절 ‘(우유가) 책상에 있던’이 안겨 있으며, 주어 ‘우유가’가 생략되어 있다. ㉢에는 관형사절 ‘동생이 (책을) 읽을’이 안겨 있으며, 목적어 ‘책을’이 생략되어 있다.

03 부정 표현

㉠은 ‘-지 못하다’가 쓰인 ‘긴 부정’이며, 주어의 능력이나 그 밖의 다른 상황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함을 나타내는 ‘능력 부정’이다. ㉡는 ‘안’이 쓰인 ‘짧은 부정’이며, 주어의 의지에 의해 어떤 동작이 일어나지 않음을 나타내는 ‘의지 부정’이다. ㉢는 ‘못’이 쓰인 ‘짧은 부정’이며, 주어의 능력이나 그 밖의 다른 상황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함을 나타내는 ‘능력 부정’이다. ㉣는 ‘-지 않다’가 쓰인 ‘긴 부정’이며, 단순히 어떤 상태가 그렇지 않음을 나타내는 ‘단순 부정’이다. ㉤는 ‘안’이 쓰인 ‘짧은 부정’이며, 단순히 어떤 상태가 그렇지 않음을 나타내는 ‘단순 부정’이다.

2 **강** 국어의 탐구와 활용 ④ 담화/국어사

본문 38~40쪽

문제로 이해하기 **4** 예시 답안

- 01** (1) ㉠, ㉡
(2) ㉢, ㉣
(3) ㉠, ㉡, ㉢, ㉣

- 02** (1) ㉠
(2) ㉡
(3) ㉢, ㉣
(4) ㉠

03

	㉠	㉢	㉣	㉤
(1)	○	○	×	×
(2)	○	○	○	○

01 담화의 구성 요소

㉠, ㉡, ㉢은 모두 하은의 할아버지를 지칭한다. ㉣, ㉤, ㉥은 모두 하은을 지칭한다. ㉦, ㉧, ㉨, ㉩은 모두 하은의 어머니를 지칭한다.

02 중세 국어 자료 탐구

- (1) ‘수비’에서 ‘빙(순경음 비)’을 확인할 수 있다.
- (2) ‘뿌메’는 ‘쁘-+ -음+ 에’로 분석되는데, 이때의 ‘-음’은 명사형 전성 어미이다.
- (3) ‘배’는 ‘바’와 ‘ㅣ’가, ‘내’는 ‘나’와 ‘ㅣ’가 결합한 것으로 이때의 ‘ㅣ’는 주격 조사이다.
- (4) ‘나랏’은 무정 명사 ‘나라’와 ‘ㅅ’이 결합한 것으로 이때의 ‘ㅅ’은 관형격 조사이다.

03 중세 국어의 문법

- (1) ‘묻좁고’의 ‘-좁-’에서 ㉠이, ‘니르샤디’의 ‘-샤-’에서 ㉡이 확인된다.
- (2) ‘太子씩’의 ‘씩’에서 ㉢이, ‘드리스 븃 시니’의 ‘드리다’, ‘-술-’, ‘-으시-’에서 각각 ㉣, ㉤, ㉥이 확인된다.

3강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

본문 45~47쪽

문제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 01 비판적, 신뢰성
 02 소리, 영상
 03 (가)는 정보 전달과 설득이 목적이며, (나)는 사회적 상호 작용이 목적이다.
 04 ㉠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대한 정보 전달
 ㉡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인쇄 매체보다 인터넷 매체가 더 적합함.

01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매체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 이해관계, 매체 자료에 내포된 시각과 관점 등을 확인해야 한다.

02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영상 매체의 하나인 영화는 문자, 소리, 영상 등 다양한 매체 언어를 활용한다.

03 정보 전달과 설득

(가)는 플라스틱 사용에 관한 정보 전달과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 (나)는 친구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모습에서 사회적 상호 작용을 목적으로 함을 알 수 있다.

04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학생 2’의 첫 번째 발화를 보면, 매체 자료 제작의 목적은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대한 정보 전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매체 자료 선정의 이유로 ‘학생 1’의 세 번째 발화를 보면, 많은 사람에게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인쇄 매체보다 인터넷 매체가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강 언어와 매체에 관한 태도

본문 49~51쪽

문제로 이해하기 예시 답안

- 01 ㉠, ㉡, ㉢
 02 ㉠

01 매체 언어와 개인적·사회적 소통

㉠ 방송에서 진행자는 ‘여러분도 실시간 채팅으로 참여해 주세요. 제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 방송입니다.’라며 시청자들 역시 방송을 만들어 가는 주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 방송에서 진행자는 시청자가 작성한 실시간 채팅 창을 확인하며 시청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 방송에서 진행자는 ‘최근, 뉴스에서 야생 버섯을 채취한 사람들이 독버섯을 먹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어요.’라며 방송을 통해 전달할 정보가 시의성이 있다는 점을 최근 사례를 바탕으로 밝히고 있다.

02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방송에서 ‘행복이’는 ‘독버섯은 골라서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잘못 먹고 병원 가는 사람이 생겨요?’라며 진행자가 밝힌 내용과 관련된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을 뿐, 진행자가 알려 준 내용 중에서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고 있지는 않다.

2부 | 적용 학습

01 언어

본문 54~57쪽

- 01 ③
- 02 ②
- 03 ④
- 04 ④
- 05 ②
- 06 ④

01 국어의 음운 체계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고립’과 ‘고집’에서 ‘리’은 유음이고, ‘즈’은 파찰음이므로 조음 방법이 다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고’와 ‘구’는 모두 원순 모음이므로 음운 체계 측면에서 입술 모양이 같다.
- ② ‘리’와 ‘리’은 모두 치조음이므로 음운 체계 측면에서 조음 위치가 같다.
- ④ ‘리’와 ‘리’는 모두 중모음이므로 음운 체계 측면에서 혀의 높이가 같다.
- ⑤ ‘리’과 ‘리’은 모두 양순음이므로 음운 체계 측면에서 조음 위치가 같다.

02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박학다식한’에서는 ‘ㄱ’과 ‘ㅎ’이 만나므로 표준 발음으로 소리 내어 읽을 때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박각따식한]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두 번째 음절의 종성 자리의 ‘ㄱ’만 발음하면 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법학과’에서는 ‘ㅂ’과 ‘ㅎ’이 만나고, ‘한국학을’에서는 ‘ㄱ’과 ‘ㅎ’이 만나므로, 표준 발음으로 소리 내어 읽을 때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버학파], [한:구카글]로 발음한다.
- ③ ‘적막한’에서는 ‘ㄱ’과 ‘ㄹ’, ‘ㄱ’과 ‘ㅎ’이 만나므로, 표준 발음으로 소리 내어 읽을 때는 비음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난 [정막한]으로 발음한다.
- ④ ‘음내를’, ‘잡념도’에서는 ‘ㅂ’과 ‘ㄴ’이 만나므로, 표준 발음으로 소리 내어 읽을 때는 비음화가 일어난 [음내를], [잡념도]로 발음한다.

⑤ ‘벽지에’에서는 ‘ㄱ’과 ‘ㅅ’이 만나고, ‘속속’에서는 ‘ㄱ’과 ‘ㅅ’이 만나므로, 표준 발음으로 소리 내어 읽을 때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 [벽찌에], [속쑥]으로 발음한다.

03 표준 발음법에 관한 조항 - 음의 동화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금강산’에서 첫음절 종성 자리의 ‘ㄹ’이 뒤에 오는 연구개음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발음이 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꽃길’에서 첫음절 종성 자리의 ‘ㅈ’이 ‘ㄷ’으로 발음되어야 하는데, 뒤에 오는 연구개음의 영향을 받아 ‘ㄱ’으로 발음이 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감각’은 첫음절 종성 자리의 ‘ㄹ’이 뒤에 오는 연구개음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발음이 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익명’은 발음할 때 비음화만 일어나고, <보기>에서 설명한 자음 동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금방’, ‘독서대’에는 <보기>에서 설명한 자음 동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③ ‘검사’, ‘목도리’에는 <보기>에서 설명한 자음 동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⑤ ‘곧바로’는 첫음절 종성 자리의 ‘ㄷ’이 뒤에 오는 양순음의 영향을 받아 ‘ㅂ’으로 발음이 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국자’에서는 <보기>에서 설명한 자음 동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나타나지 않는다.

04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꼰매미]와 [부엉문]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난다. ㉡의 [구:금냥]과 [생누리]에서는 ‘ㄴ’ 첨가와 비음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 ㉡에서는 단어마다 음운 변동이 두 번씩 일어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가, ㉡에서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난다. 이는 모두 교체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다.
- ② ㉠, ㉡에서는 모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다. 종성 자리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만 소리가 날 수 있으므로, 여기에 속하지 않는 자음이 종성 자리에 오면 이 일곱 개

의 자음 중 하나로 바뀌어 발음된다.

- ③ ㉠에서는 비음화, ㉡에서는 유음화가 일어난다. 비음화나 유음화가 일어나면 인접한 자음끼리 조음 방법이 같아진다.
- ⑤ ㉢, ㉣에서는 모두 ‘ㄴ’ 첨가가 일어난다.

05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숨:니불]에서는 ‘ㄴ’ 첨가가 일어났다. ‘숨이불’에서 ‘ㅇ’은 표기상으로도 존재할 뿐 음운이 아니다. [소:미불]에서는 음운 변동이 일어나지는 않았고, 연음만 일어났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빛이’에 대해서 표준 발음에서는 ‘ㅈ’을 발음하였고, 비표준 발음에서는 표기와 다른 ‘ㅅ’을 발음하였다.
- ③ ‘인사말’에 대해서 표준 발음은 표기와 일치하지만, 비표준 발음에서는 ‘ㄴ’이 첨가되었다.
- ④ ‘비윤리적’에 대해서 표준 발음에서는 ‘ㄴ’을 ‘ㄹ’로 바꾸어 발음했지만, 비표준 발음에서는 ‘ㄹ’을 ‘ㄴ’으로 바꾸어 발음했다.
- ⑤ ‘기슭에는’에 대해서 표준 발음에서는 ‘슭’의 ‘ㄹ’과 ‘ㄱ’을 모두 발음했고, 비표준 발음에서는 ‘ㄱ’만 발음했다.

06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쪼어’와 ‘어학’ 모두 ‘ㅎ’이 모음 사이에 위치한다. 그러나 ‘쪼어’를 발음할 때는 ‘ㅎ’이 탈락했지만, ‘어학’을 발음할 때는 ‘ㅎ’이 탈락하지 않았다. ‘ㅎ’이 모음 사이에 위치하면서 용언의 어간 끝에 있을 때 필수적으로 탈락이 일어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안다’에서는 ‘ㄴ’이 용언의 어간 끝에 있어, 그 뒤에 어미 ‘-다’가 오면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언덕’은 한 형태소로 된 명사로서 이러한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 ② ‘씩다’는 어간과 어미가 결합한 용언의 활용형이고, ‘국밥’은 명사이다. 따라서 어간과 어미의 결합이 아닐 때도 된소리되기가 일어났다.
- ③ ‘곧이’는 ‘곧-’에 접사 ‘-이’가 결합한 단어로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곧이어’는 ‘곧’에 ‘이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즉 ‘ㄷ’ 뒤에 실질 형태소가 온 것이기 때문에 발음할 때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 ⑤ [쓰이다]에서 ‘-’ 뒤에 모음이 왔지만, [썩]와는 달리 ‘-’ 탈

락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쓰-’ 뒤에 어미가 아닌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어간이 ‘쓰이-’가 되었고, 이에 따라 ‘-’가 어간 끝에 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02 언어

본문 58~60쪽

- 01 ④ 02 ③ 03 ② 04 ②
- 05 ② 06 ③

01 국어의 모음의 종류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표준 발음법 제5항에 따라 ‘의회 정치’의 첫음절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해야 한다.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에 해당하지 않고 첫음절에 사용된 ‘의’이므로 단모음으로 발음할 수 없다. 표준 발음법 제4항 붙임에 따라 ‘의회 정치’의 두 번째 음절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표준 발음법 제5항 다만 3에 따라 ‘희’를 발음할 때는 [히]로 발음한다.
- ② 표준 발음법 제5항 다만 2에 따라 ‘혜’는 [헤]로도 발음할 수 있다.
- ③ 표준 발음법 제5항에 따라 ‘개’, ‘요’, ‘꽤’, ‘예’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참고로, 표준 발음법 제5항 다만 1에 따라 ‘예뻐졌어’의 세 번째 음절은 [저]로 발음한다.
- ⑤ 표준 발음법 제5항 다만 4에 따라 ‘우리의 동의’의 세 번째 음절은 [에]로 발음할 수 있고, 다섯 번째 음절은 [이]로 발음할 수 있다.

02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서는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 개수가 줄어들었으나, ㉡에서는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 개수가 바뀌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설익다[설릭따]’는 ‘ㄴ’ 첨가, 유음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고, ㉡의 ‘웁는다[음는다]’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 ㉡에서는 모두 음

운 변동이 각각 세 번씩 일어났다는 서술은 적절하다.

- ② ㉠에서 첨가된 음운은 ‘ㄴ’이고, ㉡에서 탈락한 음운은 ‘ㄹ’로 서로 다르다.
- ④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따라 ㉠에서는 ‘음’의 ‘ㅍ’이 ‘ㅂ’으로, ㉡에서는 ‘슈’의 ‘ㅍ’이 ‘ㄱ’으로 바뀐다.
- ⑤ ㉠에서 일어난 유음화와 ㉡과 ㉢에서 일어난 비음화는 모두 인접한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음운 변동이다.

03 교체, 탈락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끓는다’가 [꺠:는다]로 발음되는 것은 자음군 단순화로 인해 ‘ㄹ’이 탈락한 결과로,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최대 개수는 1개라는 제약과 관련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미달이문’이 [미:다지문]으로 발음되는 것은 ‘ㄷ’이 접미사 ‘-이’의 ‘ㅣ’ 앞에서 ‘ㅈ’으로 바뀐 결과로, ㉠과 관련된 교체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 ③ ‘흙일’이 [흙닐]로 발음되는 것은 ‘ㄴ’ 첨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한 ‘ㄹ’ 탈락, 비음화의 결과이다. 이때 ‘ㄱ’이 ‘ㅇ’으로 바뀌는 이유는 ‘ㄴ’이 첨가되어 뒷말의 첫소리에 놓인 ‘ㄴ’에 의해 앞선 ‘ㄱ’에 비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과 관련된 탈락은 한 번 일어났으나 ㉠과 관련된 교체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 ④ ‘옆얼굴’이 [여벌굴]로 발음되는 것은 음절 종성에 올 수 없는 자음인 ‘ㅍ’이 ‘ㅂ’으로 바뀐 후 뒤 음절의 초성으로 이동한 결과이다. 이때 ‘여벌굴’과 같이 연음되지 않는 이유는 ‘얼굴’이 실질 형태소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과 관련된 교체는 한 번 일어났으나 ㉡과 관련된 탈락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 ⑤ ‘맑다’가 [막따]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되기, 자음군 단순화에 의한 ‘ㄹ’ 탈락의 결과이다. 이 과정에서 ㉡과 관련된 탈락은 한 번 일어났으나 ㉠과 관련된 교체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04 교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같이[가치]’는 선행하는 자음 ‘ㄷ’이 후행하는 ‘ㅣ’의 조음 위치에 닮아 가는 동화이므로, 역행 동화이자 부분 동화에 해당한다. ‘박물관[방물관]’은 동화음 ‘ㅁ’이 피동화음 ‘ㄱ’보다 뒤에 있는 역행 동화이자 피동화음 ‘ㄱ’이 동화음 ‘ㅁ’의 조음 방법만 닮는 부분 동화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④, ⑤ ‘맑는[달른]’은 동화음 ‘ㄹ’이 앞에 있으므로 순행 동화에 해당하고, 피동화음이 동화음과 동일해지는 완전 동화에 해당한다.
- ③ ‘신라[실라]’는 동화음 ‘ㄹ’이 뒤에 있으므로 역행 동화에 해당하나, 피동화음이 동화음과 동일해지므로 완전 동화에 해당한다.

05 교체, 첨가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되-+-어 → [되여]’와 ‘아니-+-오 → [아니요]’에서는 각각 어미의 ‘ㅣ’와 ‘ㅇ’에 반모음 ‘j’가 첨가되었다. ㉡의 ‘살피-+-어서 → [살피서]’는 어간의 ‘ㅣ’가 반모음 ‘j’로 바뀌어 어미의 ‘ㅣ’와 결합한 것이고, ‘바꾸-+-어 → [바꿔]’는 어간의 ‘ㄱ’이 반모음 ‘w’로 바뀌어 어미의 ‘ㅣ’와 결합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서는 반모음 ‘j’가 첨가되었으나, ㉡에서 반모음이 탈락한 것은 아니다.
- ③ ㉠은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된 것이 아니고 없던 반모음이 첨가된 것이다. ㉡은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된 것이다.
- ④ ㉠은 단모음이 반모음으로 교체된 것이 아니고 없던 반모음이 첨가된 것이다. ㉡에서 반모음이 탈락한 것은 아니다.
- ⑤ ㉠은 반모음이 탈락한 것이 아니고 첨가된 것이다.

06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맑고[말꼬]’는 ‘맑고 → 맑꼬 → [말꼬]’와 같이 된소리되기라 먼저 적용된 후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 것이다. 용언 활용형에서는 ‘ㄹ’ 뒤에서 된소리되기 일어나지 않으므로, 된소리되기가 자음군 단순화보다 먼저 적용되지 않으면 표준 발음 [말꼬]를 설명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닭이[달가]’는 연음만 적용된 것이다.
- ② ‘앉는[알른]’은 ‘앉는 → 알는 → [알른]’과 같이 자음군 단순화가 먼저 적용된 후 유음화가 적용된 것이다.
- ④ ‘끓지[끌치]’는 ‘끓지 → [끌치]’와 같이 거센소리되기만 적용된 것이다.
- ⑤ ‘벼훅이[벼훅치]’는 ‘벼훅이 → [벼훅치]’와 같이 구개음화만 적용된 것이다.

03 언어

본문 61~63쪽

- 01 ③
- 02 ⑤
- 03 ④
- 04 ①
- 05 ②
- 06 ③

01 체언의 특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위’는 관형사절의 수식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 사례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는 관형사절 외에도 ‘다른 이들은 어디 있지?’에서처럼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것’은 관형사절 외에도 다양한 관형어를 취할 수 있으므로 ㉠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분’은 관형사절 외에도 ‘어떤 분이 선생님을 찾아오셨습니다.’에서처럼 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때문’은 관형사절 외에도 관형사, 체언, 명사절의 수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02 용언의 특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주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남에게 앞말이 뜻하는 일이나 감정을 겪게 하거나 느끼게 함.’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서 ‘나다’는 ‘책을 읽는 행동이 끝났음.’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② ㉡에서 ‘두다’는 ‘도서관 앞에 자전거를 세우는 행동이 끝나고 그 결과를 유지함.’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③ ㉢에서 ‘보다’는 ‘잠을 못 잔 행동이나 상태를 추측함.’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④ ㉣에서 ‘가지다’는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는 행동의 결과가 유지됨으로써 배탈이 난 상태가 유발됨.’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03 형태소의 종류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가르침’은 ‘가르치-’와 ‘-ㅁ’이 결합한 단어인데 ‘가르치-’와 ‘-ㅁ’은 모두 의존 형태소이므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가 결합하여 더 큰 의미를 가진 단위가 되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10개의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고, ㉡은 11개의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② ㉠의 ‘책’과 ㉡의 ‘꽃’은 더 작은 의미를 가진 단위로 나눌 수 없으므로 각각 하나의 형태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절한 내용이다.
- ③ ㉠의 ‘좋은’에서 ‘중-’과 ㉡의 ‘벌써’가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⑤ ㉠의 ‘준다’에서는 형식 형태소 ‘-ㄴ-’과 ‘-다’를 분석해 낼 수 있고, ㉡의 ‘피었겠다’에서는 형식 형태소 ‘-었-’, ‘-겠-’, ‘-다’를 분석해 낼 수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04 단어의 분류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눈비’는 어근 ‘눈’과 어근 ‘비’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정답다’는 어근 ‘정’과 접미사 ‘-답다’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햇수고’는 접두사 ‘햇-’과 어근 ‘수고’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높다’는 ‘높-’이라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슬기롭다’는 어근 ‘슬기’와 접미사 ‘-롭다’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햇나물’은 접두사 ‘햇-’과 어근 ‘나물’이 결합한 단어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③ ‘봄비’는 어근 ‘봄’과 어근 ‘비’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자랑스럽다’는 어근 ‘자랑’과 접미사 ‘-스럽다’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길이’는 어근 ‘길-’과 접미사 ‘-이’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덥다’는 ‘덥-’이라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참깨’는 접두사 ‘참-’과 어근 ‘깨’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가위

질'은 어근 '가위'와 접미사 '-질'이 결합한 단어이므로 ㉔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반달'은 어근 '반'과 어근 '달'이 결합한 단어이므로 ㉑의 사례로 적절하다. '첫사랑'은 어근 '첫'과 어근 '사랑'이 결합한 단어이므로 ㉒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되감다'는 접두사 '되-'와 어근 '감다'가 결합한 단어이므로 ㉔의 사례로 적절하다.

05 단어의 구성 요소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그림'은 명사이므로 '-ㅁ'은 파생 접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어미로 분석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맨땅'은 어근 '땅'에 접사 '맨-'이 결합한 복합어이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③ '맨땅에 그림 그리기'는 명사절에 해당하므로 '그리기'의 '-기'는 어미이며, '그리-'는 어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절한 내용이다.
- ④ '즐기던'의 '-던'은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이며, '즐기-'는 동사의 어간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⑤ '누이동생'은 어근 '누이'와 어근 '동생'이 결합한 복합어이다. 따라서 적절한 내용이다.

06 단어 배열법에 따른 합성어 종류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쌈밥'은 어근 '쌈(싸-+ㅁ)'과 '밥'이 결합한 형태로 '명사+명사'의 구조를 지닌 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㉒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른바'는 '이른'과 '바'가 결합한 형태로 '용언의 관형사형+명사'의 구조를 지닌 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㉑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② '골라잡다'는 '골라'와 '잡-'이 결합한 형태로 '용언의 연결형+용언의 어간'의 구조를 지닌 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㉑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④ '날뛰다'는 '날-'과 '뛰-'가 결합한 형태로 '용언의 어간+용언의 어간'의 구조를 지닌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㉒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⑤ '산들바람'은 '산들'과 '바람'이 결합한 형태로 '부사+명

사'의 구조를 지닌 비통사적 합성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㉒의 사례로 적절하다.

04 언어

분문 64~67쪽

- 01 ② 02 ① 03 ② 04 ⑤
- 05 ③ 06 ⑤

01 용언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깰다'의 '깰-'은 '깨-'에 '-ㄴ-'이 결합한 것이다. '질다'는 기본형으로서 선어말 어미가 쓰이지 않았다. '먹는구나'는 '먹-'에 '-는구나'가 결합한 것이다. '멋지구나'는 '멋지-'에 '-구나'가 결합한 것이다. '오는'은 '오-'에 '-는'이 결합한 것이다. '따뜻한'은 '따뜻하-'에 '-ㄴ-'이 결합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막힌다'의 '막힌-'은 동사 어간 '막히-'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이 결합한 것이다.
- ③ '모였구나'의 '모였-'은 동사 어간 '모이-'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한 것이다. 현재 시제일 때가 아니다. '가는'은 형용사 어간 '가늘-'에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한 것이다. 동사의 사례가 아니다.
- ④ '뺨인'은 동사 어간 '뺨이-'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것이다. '-ㄴ-'은 형용사 어간과 결합했을 때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기능하지만, 동사 어간과 결합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
- ⑤ '끝냈구나'의 '끝냈-'은 동사 어간 '끝내-'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한 것이다. 현재 시제일 때가 아니다.

02 용언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실었다'의 기본형은 '신다'이다. '신-'에 '-었-'이 결합할 때 연음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나, '실-'이 나타나므로 불규칙한 활용을 보인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물다'가 '물었다'로 활용될 때 연음이 일어나므로 규칙적이다.

- ③ ‘절다’가 ‘절었다’로 활용될 때 연음이 일어나므로 규칙적이다.
- ④ ‘따르다’가 ‘따랐다’로 활용될 때 ‘-’ 탈락이 일어나므로 규칙적이다.
- ⑤ ‘다다르다’가 ‘다다랐다’로 활용될 때 ‘-’ 탈락이 일어나므로 규칙적이다.

03 단어의 의미 관계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의 ‘견뎌’에 대응하는 주체는 ‘벼 품종’이다. 반면에 ②의 ‘견딜’에 대응하는 주체는 ‘다리’이다. 따라서 ‘견디다’는 동식물에서 무생물로 쓰임이 확대된 다의어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①의 ‘냅니다’는 보조 용언으로서 형식적인 의미를 지니고, ①의 ‘내며’는 ‘감정을 가지게 하거나 드러나게 하다.’라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용언이다. 실질적인 의미에서 형식적인 의미로 의미가 확장된 사례이므로 다의어이다.

③ ①의 ‘만들었다’는 ‘분위기’라는 추상적인 대상에 대해 쓰였고, ②의 ‘만든’은 ‘다리’라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쓰였다. 구체적인 대상에서 추상적인 대상으로 쓰임이 확대된 사례이므로 다의어이다.

④ ②에서 ‘나으려면’은 ‘병이나 상처 따위가 고쳐져 본래대로 되다.’라는 의미의 단어이고, ‘나아’는 ‘보다 더 좋거나 앞서 있다.’라는 의미의 단어이다. 둘은 의미가 확장된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동음이의어이다. 동음이의어는 국어사전에 별개의 표제어로 실린다.

⑤ ②에서 ‘끌며’는 ‘신’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쓰였고, ‘끌었다’는 ‘주의’라는 추상적인 사고 행위에 대해 쓰였다. 구체적인 대상에서 추상적인 대상으로 쓰임이 확대된 사례이므로 다의어이다. 다의어는 국어사전에 하나의 표제어로 실린다.

04 합성어와 파생어 분석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갓은소리’의 ‘갓은’과 ‘딴말’의 ‘딴’은 관형사이다. 둘 모두 형태 변화를 하지 않고 조사와 결합하지 않으며, 체언을 꾸미는 역할을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돌잔치’에서 ‘돌’과 ‘잔치’는 모두 명사이다. ‘문고리’에서 ‘문’과 ‘고리’도 모두 명사이다.

② ‘잘못’에서 ‘잘’과 ‘못’은 모두 부사이다. ‘이리저리’에서 ‘이리’와 ‘저리’도 모두 부사이다.

③ ‘병나다’에서 ‘병’은 명사이고, ‘나-’는 동사이다. ‘값나가다’에서 ‘값’은 명사이고, ‘나가-’는 동사이다.

④ ‘먹거리’에서 ‘먹-’은 동사이고 ‘거리’는 명사이다. ‘뉘밥’에서 ‘뉘-’은 동사이고, ‘밥’은 명사이다.

05 합성어와 파생어 분석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봄맞이’는 ‘봄을 맞는 일’ 또는 ‘봄을 맞아서 베푸는 놀이’를 의미하므로, ‘봄맞이’에서의 ‘-이’는 도구가 아닌 행위와 관련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지게’는 ‘짐을 얹어 사람이 등에 지는 우리나라 고유의 운반 기구’이고, ‘집게’는 ‘물건을 집는 데 쓰는, 끝이 두 가닥으로 갈라진 도구’이므로, ‘-게’는 도구와 관련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달리기’는 ‘달음질하는 일’을 의미하고, ‘걷기’는 ‘걷는 일’을 의미하므로, ‘-기’가 행위와 관련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가위질’은 ‘가위로 자르거나 오리는 일’을 의미하고, ‘부채질’은 ‘부채를 흔들어 바람을 일으키는 일’을 의미하므로, ‘-질’이 행위와 관련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멋쟁이’는 ‘멋있거나 멋을 잘 부리는 사람’을 의미하고, ‘겁쟁이’는 ‘겁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므로, ‘-쟁이’가 사람과 관련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6 합성어와 파생어의 형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날다’의 ‘날-’을 어근으로 하여, 피동이나 사동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 ‘-리-’를 결합하면 ‘날리다’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 ‘마구’ 또는 ‘매우 심하게’의 의미를 더하는 접두사 ‘휘-’를 결합하면 ‘휘날리다’를 만들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창문’은 ‘창’과 ‘문’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② ‘장’은 물건을 넣어 두는 가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명사인 어근이다. 따라서 ‘서랍장’은 합성어이다.

③ ‘꿈’은 ‘꾸-’에 ‘-ㅁ’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④ ‘뒤돌아보다’에서 ‘뒤’는 명사인 어근이다.

05 언어 본문 68~7쪽

01 ③	02 ④	03 ③	04 ④
05 ②	06 ②		

01 문장 성분의 종류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명사구 '나 혼자'에 그 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서'가 결합하여, '기다렸는데'의 주어로 쓰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감탄사 '아니'가 별도의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독립어로 쓰이고 있다.
- ② 명사 '약속'이 별도의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시간'을 꾸미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다.
- ④ 명사절 '누구라도 오기'에 목적격 조사 '를'이 결합하여 '기다렸는데'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
- ⑤ 대명사 '아무'에 보조사 '도'가 결합하여 '안 왔어'의 주어로 쓰이고 있다.

02 문장 성분별 특성 - 부사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어머니께'는 '말씀드렸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이므로 필수적 부사어에 해당하나, ㉡의 '아침으로'는 서술어인 '먹었네'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너무'는 뒤따르는 부사 '배불리'를 꾸미고 있다.
- ② '설마'는 문장 전체의 의미와 연결되어 문장 전체를 꾸미고 있다.
- ③ '숨소리가 들릴 만큼'은 의존 명사 '만큼'과 관형사절 '숨소리가 들릴'이 함께 쓰여 용언 '조용하던'을 꾸미고 있다.
- ⑤ '솔직하게'는 형용사 '솔직하다'에 어미 '-게'가 결합한 형태로, 용언 '말씀드렸어'를 꾸며 주는 부사어로 쓰였다. '크게'는 형용사 '크다'에 어미 '-게'가 결합한 형태로, 용언 '울렸다'를 꾸며 주는 부사어로 쓰였다.

03 안은문장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우리 팀이 결승전에서 무너졌던 사건은 충격이었다.'의 관형사

절인 '우리 팀이 결승전에서 무너졌던'에는 생략된 성분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명사절 '학생 신분임'의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결국 안은문장의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인 '그'와 같아 생략이 일어난 경우이다.
- ② 관형사절 '세종 대왕이 창제한'의 목적어가 가리키는 대상인 '한글'이 안은문장의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인 '한글'과 같아 생략이 일어난 경우이다.
- ④ 인용절 '점심으로 떡볶이를 먹겠냐고'의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이 결국 안은문장의 부사어 '동생한테'의 '동생'과 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어서 생략이 일어난 경우이다.
- ⑤ 관형사절 '애써 찾아간'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인 '집'과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인 '우리'가 각각 안은문장의 부사어가 가리키는 대상인 '집'과 주어가 가리키는 대상인 '우리'와 같아 생략이 일어난 경우이다.

04 안은문장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안긴절인 '네가 생각하기'와 ㉡의 안긴절인 '할머니께서 어머니께 물려주신'에는 둘 다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는 조사 '에'와 결합하여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절 '네가 생각하기'가 있다.
- ② ㉡에는 조사 '이'와 결합하여 주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절 '눈이 오겠다던 예보가 잘못됐음'이 있다.
- ③ ㉡에는 조사와의 결합 없이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절 '할머니께서 어머니께 물려주신'이 있다.
- ⑤ ㉡의 안긴절 '눈이 오겠다던'과 '눈이 오겠다던 예보가 잘못됐음'은 둘 다 안긴절 속의 서술어가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에는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의 안긴절 '할머니께서 어머니께 물려주신'에는 목적어 '목걸이를' 따위가 생략되어 있다.

05 높임 표현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객체를 높이기 위한 문법적 수단으로 조사 '께'를 사용하여 '부모님에게'를 '부모님께'로 수정한 것은 적절하나, 주체를 높이기 위한 어휘적 수단을 쓰고 있지 않으므로 ㉠을 만족시키지 못하였으며 문장의 높임 표현 또한 올바르게 수정되지

않았다. ㉠을 만족시키도록 문장의 높임 표현을 올바르게 수정하기 위해서는, 주체 높임의 특수 어휘인 '계시다'를 사용하여 '있으시는'을 '계시는'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주체를 높이기 위한 어휘적 수단으로 특수 어휘 '주무시다'를 사용하여 '잔다'를 '주무신다'로, 문법적 수단으로 조사 '께서'를 사용하여 '할아버지가'를 '할아버지께서'로 수정하였다.
- ③ 주체를 높이기 위한 문법적 수단으로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삼촌이'를 '삼촌께서'로, '갔다'를 '가셨다'로 수정하였고, 객체를 높이기 위한 어휘적 수단으로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여 '데리러'를 '모시러'로 수정하였다.
- ④ 주체를 높이기 위한 문법적 수단으로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선생님이'를 '선생님께서'로, '부르다'는 '부르신다'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객체를 높이기 위한 문법적 수단으로 조사 '께'를 사용하여 '선생님에게'를 '선생님께'로 수정하였다.
- ⑤ 객체를 높이기 위한 어휘적 수단으로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여 '줄'을 '드릴'로, 문법적 수단으로 조사 '께'를 사용하여 '어머니에게'를 '어머니께'로 수정하였다.

06 부정 표현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은 '-지 못하다'에 의한 부정문으로, 동사가 서술어로 쓰여 주체('갓 태어난 아기')의 능력 때문에 '목을 가누'는 행위가 일어나지 못함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낼 때는 서술어로 쓰인 형용사를 '-지 못하다'에 의해 부정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안'에 의한 부정문으로, 단순히 '벚꽃'이 피지 않은 상태임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 ③ ㉡은 '-지 않다'에 의한 부정문으로, 주체('나')의 의지에 따라 '낮잠을 자'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 ④ ㉢은 '-지 못하다'에 의한 부정문으로, 동사가 서술어로 쓰여 주체('그')의 능력 때문에 '버스를 붙잡'는 행위가 일어나지 못했음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 ⑤ ㉣은 '못'에 의한 부정문으로, 동사가 서술어로 쓰여 외부의 원인('폭설') 때문에 '고향에 가'는 행위가 일어나지 못함을 나타내는 문장이다.

06 언어

- 01 ④ 02 ⑤ 03 ③ 04 ④
- 05 ④ 06 ④

01 문장 성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쓸쓸하다'는 '외롭고 적적하다.'의 의미로 주어만을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또한 '내리다'는 '눈, 비, 서리, 이슬 따위가 오다.'의 의미로 주어만을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다. 따라서 '내리다'가 주어와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서 '예쁘다'는 '생긴 모양이 아름다워 눈으로 보기에 좋다.'의 의미로 주어만을 요구하는 한 자리 서술어이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② ㉢에서 '변하다'는 '무엇이 다른 것이 되거나 혹은 다른 성질로 달라지다.'의 의미로 주어와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③ ㉣에서 '보내다'는 '상대편에게 자신의 마음가짐을 느끼어 알도록 표현하다.'의 의미로 주어, 부사어, 목적어를 모두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⑤ ㉤에서 '생각하다'는 '어떤 일에 대한 의견이나 느낌을 가지다.'의 의미로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02 관형어의 형태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비가 오는'에 포함되어 있는 '-는'은 관형사형 어미이다. 따라서 보조사 '는'이 결합한 관형사절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다른'은 '당장 문제 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의 의미를 지닌 관형사로 문장에서 '것'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친구'는 명사로 문장에서 '물건'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할아버지의'는 명사 '할아버지'에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

한 형태가 문장에서 ‘얼굴’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④ ‘우리 동생’은 ‘우리’와 ‘동생’이 결합한 명사구로 문장에서 ‘선물’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03 구조에 따른 문장의 종류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의 주어는 ‘나는’이고 서술어는 ‘간다’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이다. ㉕의 주어는 ‘그가’이고 서술어는 ‘주었다’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홑문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A]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은 ㉔, ㉕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㉑ 주어 ‘나는’과 서술어 ‘깎아’, 주어 ‘나는’과 서술어 ‘먹었다’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므로 겹문장에 해당한다.

㉒ 주어 ‘그는’과 서술어 ‘입어 보았다’, 주어 ‘그가’와 서술어 ‘산’과 같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므로 겹문장에 해당한다.

㉓ 주어 ‘네가’와 서술어 ‘합격하기’, 주어 ‘나는(혹은 우리는)’과 서술어 ‘바란다’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므로 겹문장에 해당한다.

04 이어진문장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날이 더워지자 에어컨 판매가 늘었다.’에서 앞 절인 ‘날이 더워지자’는 ‘에어컨 판매가 늘었다’와 의미상 독립성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앞 절이 뒤 절의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날이 더워지자’는 뒤 절의 부사어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㉑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그는 시인이자’와 ‘(그는) 화가이다’의 경우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독립적이고, 앞 절이 뒤 절의 문장 성분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㉑의 사례로 적절하다.

② ‘서울은 추우나’와 ‘부산은 덥다’의 경우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독립적이고, 앞 절이 뒤 절의 문장 성분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㉑의 사례로 적절하다.

③ ‘이것은 먹이요’와 ‘저것은 벼루이다’의 경우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독립적이고, 앞 절이 뒤 절의 문장 성분 역할을 하

지 않으므로 ㉑의 사례로 적절하다.

⑤ ‘낮말은 새가 듣고’와 ‘밤말은 쥐가 듣는다’의 경우 앞 절과 뒤 절의 의미가 독립적이고, 앞 절이 뒤 절의 문장 성분 역할을 하지 않으므로 ㉑의 사례로 적절하다.

05 안은문장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에서 ‘수호가 합격했다고’는 서술어 ‘말했다’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부사어를 수식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㉑에서 명사형 어미 ‘-ㅁ’이 결합한 명사절 ‘내가 결백함’은 주격 조사 ‘이’와 결합하여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② ㉒에서 관형사형 어미 ‘-은’이 결합한 관형사절 ‘양복을 입은’은 ‘남자’를 수식하고 있다.

③ ㉓에서 부사형 어미 ‘-도록’이 결합한 ‘밤이 새도록’이 ‘토론했었다’를 수식하고 있다.

⑤ ㉕에서 서술절 ‘코가 길다’는 특별한 표지 없이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06 시제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의 ‘도착하였겠다’는 ‘도착하-+-였-+-겠-+-다’로 분석할 수 있다. 여기서 ‘-였-’은 과거 시제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겠-’은 화자의 추측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미래 시제를 표시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㉑의 ‘간다’에 사용된 ‘-ㄴ-’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이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② ㉒의 ‘숙제하는’에 사용된 관형사형 어미 ‘-는’은 동사에 결합하여 현재 시제를 표시하는 관형사형 어미이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③ ㉓의 ‘교사이던’에 사용된 ‘-던’은 과거 시제 관형사형 어미이고, ‘챙겼다(챙기-+-였-+-다)’의 ‘-였-’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이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⑤ ㉕의 ‘마무리한’의 관형사형 어미 ‘-ㄴ-’은 과거 시제를 표시하고 ‘갈’의 관형사형 어미 ‘-ㄹ-’은 미래 시제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07 언어

본문 75~77쪽

- 01 ③ 02 ⑤ 03 ⑤ 04 ③
05 ② 06 ②

01 문장 성분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예약해 두었다’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결합이다. 그러나 ㉡의 ‘접어서 두었다’에서 ‘두다’는 일정한 곳에 놓는다는 의미를 지니므로 보조 용언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식사 장소를’에서 ‘식사’가 ‘장소’를 꾸미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의 목적어 ‘친구가 선물한 하늘색 손수건’에서 ‘하늘색’이 ‘손수건’을 꾸미는 것을 찾을 수 있다.
- ② ㉠에서 부사 ‘미리’가 부사어로 쓰인 것을 찾을 수 있다. ㉡에서 부사 ‘잘’이 부사어로 쓰인 것을 찾을 수 있다.
- ④ ㉠에서 형용사 ‘가깝다’의 관형사형 ‘가까운’을, ㉡에서 동사 ‘선물하다’의 관형사형 ‘선물한’을 찾을 수 있다.
- ⑤ ㉠에서 ‘둘째 언니’에 주격 조사 ‘가’가 결합한 ‘둘째 언니가’를 찾을 수 있다. ㉡에서 ‘친구’에 주격 조사 ‘가’가 결합한 ‘친구가’를 찾을 수 있다.

02 문장 성분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도회’가 사용한 ‘아니’는 ‘규연’의 발화에 대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놀람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민정’과 ㉡의 ‘준우’의 발화에는 주어가 생략되어 있다.
- ② ㉠의 ‘연호’는 ‘문자’를 꾸미는 관형어 ‘내’를 사용하였고, ㉡의 ‘준우’는 관형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 ③ ㉠의 ‘연호’는 ‘민정아’, ㉡의 ‘시현’은 ‘준우야’를 사용하였다. 모두 독립어로서 호격 조사 ‘아/야’가 결합해 있다.
- ④ ㉡의 ‘시현’은 부사어로 ‘준서한테’, ‘좀’을 사용하였고, ㉠의 ‘규연’은 부사어로 ‘오후에’와 ‘다시’를 사용하였다. 이들 중 ‘준서한테’, ‘오후에’는 모두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부사어이다.

03 이어진문장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서 ‘-면’이 결합한 앞 절의 내용, 즉 여름이 되는 것이 충족되어야 뒤 절의 내용인 언제나 장마가 찾아오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뒤 절의 내용에 대해 앞 절의 내용이 조건이 되는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에서 ‘-고자’가 결합한 앞 절의 내용, 즉 인사를 드리는 일이 뒤 절의 내용인 찾아빈 일의 목적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서 비가 오는 일과 상관없이 행사는 진행될 것이므로 비가 오는 것이 행사 진행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에서 연결 어미 ‘-자’는 앞 절에서의 동작이 막 끝남과 동시에 뒤 절의 동작이 잇따라 일어났음을 드러내 준다.
- ② ㉠에서 ‘-려고’가 결합한 앞 절의 내용, 즉 건강을 지키는 것은 뒤 절의 내용인 운동을 하는 것의 목적이 된다. ㉡에서 ‘-기에’가 결합한 앞 절의 내용, 즉 줄음이 쏟아진 것은 뒤 절의 내용인 침대에 누운 것에 대한 원인이 된다.
- ③ ㉠에서 ‘-어서’가 결합한 앞 절의 내용, 즉 늦장을 부린 것은 뒤 절의 내용인 약속 시간에 늦은 것에 대한 이유가 된다. ㉡에서 ‘-러’가 결합한 앞 절의 내용, 즉 시험공부를 하는 것은 뒤 절의 내용인 도서관에 가는 것의 목적이 된다.
- ④ ㉠에서 ‘-아야’가 결합한 앞 절의 내용, 즉 맛집을 가는 것은 뒤 절의 내용인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에 대한 조건이 된다. ㉡에서 연결 어미 ‘-고서’는 앞 절에서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뒤 절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드러내 준다.

04 안은문장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의 ㉠은 서술절이고, ㉡은 관형사절이다. ‘삼촌이 사 주신 가방이’에 대해서 ‘지퍼가 망가졌다’가 서술절로 기능하고 있다. ‘삼촌이 사 주신’은 ‘가방’을 꾸며 주는 관형사절로 기능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내가 하려던’이 관형사절이지만, 서술절이 없다. ‘이런 일이’는 ‘아니다’의 보어이다.
- ② ‘우리 학교의’는 관형어이지만 절이 아니다. 또한 ‘진흙탕이’는 ‘되었다’의 보어이다.
- ④ ‘저 집이’에 대해서 ‘창문이 열려 있었다’가 서술절로 기능

하고 있다. 그러나 ‘저’는 관형어이지만 절이 아니다.
 ⑤ ‘언니가 일으킨’이 관형사절이지만, 서술절이 없다.

05 문장 종결 표현의 종류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은 동사 어간 ‘마시-’에 종결 어미 ‘-어라’가 결합하여 화자인 ‘엄마’가 청자인 ‘아들’에게 매실차를 마시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㉕의 ‘-어라’는 형용사 ‘땀다’에 쓰여 감탄의 뜻을 나타낸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과 ㉔은 ‘-어요’로 문장을 끝맺으며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 없이 어떤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문장인 평서문을 실현하고 있다.
- ③ ㉔과 ㉕에 쓰인 종결 어미의 형태는 ‘-어’로 같으나, 문장 끝의 억양으로써 각각 의문문과 평서문임을 알 수 있다.
- ④ ㉔은 명령문이지만, ㉔은 종결 어미 ‘-자꾸나’가 쓰여 화자인 ‘엄마’가 청자인 ‘아들’에게 저녁을 먹는 행동을 함께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청유문이다.
- ⑤ ㉔과 ㉕의 종결 어미는 모두 ‘-어요’이지만, ㉔은 평서문, ㉕은 의문문이다.

06 피동 표현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종이비행기가 나뭇가지에 걸렸다.’에서 주어는 ‘종이비행기가’이고, 부사어는 ‘나뭇가지에’이다. 이를 활용하여 ‘*나뭇가지가 종이비행기를 걸었다.’라는 능동문을 만들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의미상 어색한 문장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태풍이 해안 도시를 휩쓸었다.’라는 능동문을 만들어 볼 수 있다.
- ③ ‘많은 사람이 이 제품을 사랑했다.’라는 능동문을 만들어 볼 수 있다.
- ④ ‘바로 뒤의 주자가 우리 반 주자를 따라잡았다.’라는 능동문을 만들어 볼 수 있다.
- ⑤ ‘우리 식구 모두가 그 일을 추억으로 기억했다.’라는 능동문을 만들어 볼 수 있다.

08 언어

본문 78~83쪽

- 01 ③
- 02 ⑤
- 03 ③
- 04 ⑤
- 05 ①
- 06 ④

01 담화의 구성 요소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㉑의 ‘어제’는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루 전날을 의미하고, ㉒의 ‘모레’는 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바로 다음 날의 다음 날을 의미한다. 오늘은 화자가 말하고 있는 때를 포함하므로, ‘어제’와 ‘모레’는 화자가 말하고 있는 때를 기준으로 한 특정 일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의 ‘이거’는 수학책에 수록된 문제로서 대화 상황에서 화자가 볼 수 있는 대상이지만, ㉔의 ‘그거’는 문제를 하나씩만 들어서 제출하는 과제이므로 대화 상황에서 화자가 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 ② ㉑의 ‘이거’는 수학책에 수록된 문제를 가리키고, ㉔의 ‘그것’은 ‘소연’이 뒤에 새롭게 언급할 내용을 가리킨다.
- ④ ㉔의 ‘내’와 ㉕의 ‘너’는 모두 ‘서진’을 가리킨다.
- ⑤ ㉔의 ‘그거’와 ㉕의 ‘그것’은 각각 ‘소연’이 ‘서진’에게 알려 준 정보를 가리킨다.

02 문장 종결 표현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㉑에서 강연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떻겠냐는 사회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있다. 이때 강연자가 사용한 의문문은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수사 의문문이다. 질문을 안 받는 강연자가 있는지가 궁금하여 사회자에게 답변을 듣고자 질문한 것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에서 ‘사회자’는 평서문을 사용하여 청중에게 박수를 요청하였다.
- ② ㉑에서 ‘강연자’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청중에게 자기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질문하였다.
- ③ ㉑에서 ‘사회자’는 명령문을 사용하여 청중에게 질문이 있으면 손을 들고 요청하였다.
- ④ ㉑에서 ‘사회자’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강연자’에게 질의응

답 시간을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03 담화의 구성 요소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담화의 맥락상, ㉠은 ‘학교 앞 닭갈비 가게’를, ㉡은 ‘새로 생긴 즉석 떡볶이 가게’를 가리킨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담화의 맥락상, ㉠은 화자인 ‘승아’가 자기를 포함한 자기 가족을 가리키기 위해 쓴 말이므로, 여기에는 청자인 ‘유정’, ‘예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② ㉠은 ‘속초’를 가리키고 ㉡은 ‘학교 앞 닭갈비 가게’를 가리키므로 동일한 장소를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④ 담화의 맥락상, ㉡은 ‘다음 주 금요일’을 가리키므로 발화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를 가리킨다고 할 수 없다.
- ⑤ ㉡은 앞에 나온 ‘연경’을 가리키는데, ㉠은 ‘승아’, ‘유정’, ‘예원’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가리키는 대상은 ㉠이 가리키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04 담화의 구성 요소

답 ⑥

정답이 정답인 이유

㉠ 뒤에 이어지는 발화인 ‘셋이 같이 가면 좋겠다.’로 미루어 보아, ㉡의 함축 의미는 ‘용찬’과 ‘태훈’ 모두와 야구를 보고 싶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용찬’ 대신 ‘태훈’과 야구를 보고 싶다는 함축 의미는 기존에 발생하지 않았으며 담화의 맥락상 ㉡이 이를 강화한다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태훈’은 내일 선약이 있다는 말을 통해 내일 프로야구 개막전을 보러 가자는 ‘연수’의 제안에 대한 거절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 ② ‘태훈’은 ‘용찬’의 가방이 교실에 있더라는 말을 통해 ‘연수’의 물음에 대해 ‘용찬’이 아직 집에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답변을 하고 있다.
- ③ 담화의 맥락상, 선약을 조정해 보겠다는 ‘태훈’의 말은 프로야구 개막전을 보러 가자는 ‘연수’의 제안을 거절했던 기존의 함축 의미를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담화의 맥락상, 야구를 정말 좋아한다는 ‘태훈’의 말은 선약을 조정하여 내일 프로야구 개막전을 보러 가고 싶다는 함축 의미를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5 담화의 특성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서 ‘그것’이 대명사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재수용하는 내용은 ‘30분 후’가 아니라 ‘토요일 아침, 30분 후에 우리 집에 도착한다는 친구의 전화를 받’은 일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의 ‘벗’과 ‘친구’는 유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같은 대상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③ ㉡의 세 번째 문장에 쓰인 ‘왜냐하면’은 세 번째 문장이 두 번째 문장의 이유임을 보여 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④ ㉡의 ‘차’는 ‘버스’의 상위어에 해당하며 둘은 같은 대상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⑤ ㉡의 ‘하지만’은 앞 문장과 뒤 문장이 역접으로 연결됨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06 담화의 특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곳’이 ‘몽골 북부’라는 것은 앞 문장의 ‘혹한의 땅’, 뒤 문장의 ‘11월부터 3월까지 혹독한 겨울이 이어진다.’와 같은 부분을 통해 맥락적 추론을 하게 되므로 함축적 재수용의 사례로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떡’과 ‘그 인절미’는 명시적 재수용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② ‘박 선생님’과 ‘그분’은 명시적 재수용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③ ‘양녕 대군’과 ‘그’는 명시적 재수용의 사례에 해당한다.
- ⑤ ‘한복’과 ‘한복’은 명시적 재수용의 사례에 해당한다.

09 언어

본문 84~87쪽

01 ⑤	02 ③	03 ⑤	04 ④
05 ④	06 ③		

01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에서 ‘-(으/으)샤-’에 후속하는 첫 모음은 탈락된다고

하였으므로 ㉠에는 ‘가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보기>에서 ‘-(으/으)시-’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사용된다고 하였으므로 ㉡에는 ‘-으시-’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2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늘굼’은 어간 ‘늘-’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형태이므로 어근에 명사 파생 접미사가 결합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알다’의 어간은 ‘알-’이므로 ㉠의 ‘아롬’은 ‘알-’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 ② 현대어 풀이를 보면 ㉡의 ‘그림’은 명사임을 알 수 있으며, 어근 ‘그리-’에 명사 파생 접미사 ‘-ㅁ’이 결합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 ④ 현대어 풀이를 보면 ㉢의 ‘여름’은 명사임을 알 수 있으며, 어근 ‘열-’에 명사 파생 접미사 ‘-음’이 결합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 ⑤ 현대어 풀이를 보면 ㉣의 ‘여름’은 명사질의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어간 ‘열-’에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03 중세 국어의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오르느리-’는 동사의 어간 ‘오르-’와 동사의 어간 ‘느리-’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형용사의 활용형과 형용사의 어간이 결합했다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믈들-’은 명사 ‘믈’과 동사의 어간 ‘들-’이 결합한 형태이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 ② ㉡의 ‘앞셔-’는 명사 ‘앞’과 동사의 어간 ‘셔-’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 ③ ㉢의 ‘김븨-’은 형용사의 어간 ‘김-’과 형용사의 어간 ‘븨-’이 결합한 형태이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 ④ ㉣의 ‘숫나-’는 동사의 어간 ‘숫-’과 동사의 어간 ‘나-’가 결합한 형태이므로 적절한 분석이다.

04 중세 국어 자료 탐구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중세 국어 ‘果實와 물와’가 현대 국어 ‘과실과 물(을)’로 바뀌었으므로 접속하는 마지막 체언 뒤에는 접속 조사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이 적절하다. 따라서 접속하는 마지막 체언 뒤에는 접속 조사 ‘과’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소실되면서 ‘아스’가 ‘아우’로 바뀌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② ‘나아가샤’에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형태가 ‘-샤-’로 실현되었는데 ‘나가시어’에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형태가 ‘-샤-’로 실현되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 ③ ‘니브샤’의 ‘닙-’은 현대 국어의 ‘입-’으로 바뀌었으므로 어두의 ‘니’ 탈락하는 두음 법칙이 일어났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 ⑤ ‘몰라보습더니’와 ‘몰라보더니’를 비교하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이 사라졌으므로 ‘-습-’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05 중세 국어 자료 탐구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바딴’은 ‘밤 + 딴’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어 풀이를 보면 이때의 ‘딴’은 관형격 조사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이다. 시간을 나타내는 체언인 ‘밤’ 뒤에는 부사격 조사 ‘딴’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관형격 조사 ‘딴’이 사용되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누네’는 체언 ‘누’와 조사 ‘예’가 결합한 것을 적을 때 이어 적기를 한 것이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② ㉡의 ‘브르믄’은 ‘브르 + 은’의 구조로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③ ㉢의 ‘조흔니’의 현대어 풀이를 보면 ‘깨끗하니’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좋-’의 의미가 현대 국어에서와 달리 ‘깨끗하-’의 의미라는 내용은 적절하다.
- ⑤ ㉣에서 ‘자리’ 뒤에는 부사격 조사 ‘예’가 결합해 있으므로

모음 ‘ㅣ’로 끝나는 명사 뒤에서는 부사격 조사 ‘예’가 나타났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06 음운의 변천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모’가 ‘나무’로 형태가 변한 것은 단어 내부에서 지켜지던 모음 조화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 ‘-’가 ‘-’로 바뀐 것도 아니므로 ㉠이 작용하였다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말씀’이 ‘말씀’으로 형태가 변하는 데 ㉠이 작용하였다는 분석은 적절하다. 비어두 음절인 2음절의 ‘-’가 ‘-’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 ② ‘팔’이 ‘팔’로 형태가 변하는 데 ㉠이 작용하였다는 분석은 적절하다. 어두 음절의 ‘-’가 ‘ㅏ’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 ④ ‘늑’이 ‘나물’로 형태가 변하는 데 ㉠, ㉡, ㉢이 모두 작용하였다는 분석은 적절하다. 비어두 음절인 ‘물’이 ‘물’로 바뀌는 데에는 ㉠, ㉢이 작용하고 어두 음절인 ‘늑’이 ‘나’로 바뀌는 데에는 ㉠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 ⑤ ‘하물며’가 ‘하물며’로 형태가 변하는 데 ㉠, ㉡, ㉢이 모두 작용하였다는 분석은 적절하다. 비어두 음절인 ‘물’이 ‘물’로 바뀌는 데에는 ㉠, ㉢이 작용하고 어두 음절인 ‘하’가 ‘하’로 바뀌는 데에는 ㉡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10 언어

분문 88~91쪽

- 01 ⑤ 02 ③ 03 ① 04 ⑤
- 05 ②

01 단어의 의미 관계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전문어로서의 ‘나트륨’은 ‘소금’의 주요 구성 성분이라고 하였다. 일상어가 전문어보다 가리키는 범위가 좁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한자어 ‘치아’와 고유어 ‘이’가 유의 관계를 이룬다.
- ② 각 유의어의 반의어를 활용하여 유의어 간의 의미 차이를

검증할 수 있다. 이를 반의 검증이라고 한다.

- ③ ‘대답’이 쓰인 문장에서 ‘대답’을 ‘대꾸’로 바꾸어 보면서 ‘대답’과 ‘대꾸’의 의미 차이를 검증할 수 있다.
- ④ ‘발깁다’, ‘빨깁다’, ‘새빨깁다’는 같은 계열의 색을 나타내는 말들로서, 색의 정도에 따라 배열해 봄으로써 의미 차이를 검증할 수 있다.

02 단어의 의미 관계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형무소’와 ‘교도소’는 동일한 시설을 가리킨다. 하지만 ‘교도소’에는 ‘형무소’에는 없는 바로잡아 인도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는 두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 차이 측면에서 유의 관계가 나타난 사례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어린아이에게 ‘과자’ 대신 ‘까까’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지역 방언 측면의 사례가 아니다.
- ② ‘고양이’를 각 지역에서 다양하게 부르는 지역 방언의 사례로, 격식적인 측면의 유의 관계가 아니다.
- ④ 기존에 쓰이던 외래어의 발음을 바꾼 사례로, 직접 언급하기를 꺼리는 것을 완곡하게 돌려 말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⑤ 일상에서 ‘국’과 ‘찌개’를 구분하는 방식으로서, 일상어와 전문어의 차이가 나타난 사례가 아니다.

03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비었다’를 발음할 때 [비얼따]로 발음하여, 반모음 첨가가 일어날 수 있다. 이는 ‘피어[피여]’, ‘되어[되여]’에서 일어나는 반모음 첨가와 같은 것으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표준 발음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의 ‘끓였다’를 발음할 때는 ‘ㅎ’ 탈락이 일어난다. ‘ㅎ’ 탈락은 어간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 탈락하는 현상이다. 즉 ‘ㅎ’이 연음되지 않고 탈락하는 것으로서, ‘끓였다’의 ‘ㅎ’이 탈락하는 것도 ‘ㅎ’ 탈락이다. ‘ㅎ’ 탈락은 한글 맞춤법에서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③ ㉢의 ‘갔다’에서 ‘가-’에 ‘-았-’이 결합하면 동일 모음 탈락이 일어난다. 동일 모음 탈락은 한글 맞춤법에서 표기에 반영한다.

④ ㉔의 ‘굳이’에서 ‘굳-’에 ‘-이’가 결합할 때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구개음화는 한글 맞춤법에서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⑤ ㉕의 ‘막말’을 받음할 때 비음화가 일어난다. 비음화는 한글 맞춤법에서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04 품사의 특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㉑에는 보조 용언 ‘싶다’, ‘않다’가 사용되었다. ㉒에는 보조 용언 ‘않다’, ‘있다’가 사용되었다. ㉓에는 보조 용언 ‘않다’가 사용되었다. ‘모양이다’는 의존 명사 ‘모양’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에는 관형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㉒에는 관형어로 ‘내’가 사용되었다.
- ② ㉑의 ‘다름’은 ‘다르다’의 명사형이고, ㉓의 ‘다른’은 ‘다르다’의 관형사형이다.
- ③ ㉑의 ‘서로’는 명사절에서 사용되었다. ㉓의 ‘서로’는 관형사절에서 사용되었다.
- ④ ㉒에는 부사 ‘아직’이 부사어로 사용되었다. ㉓에는 부사 ‘서로’가 부사어로 사용되었다.

05 한글의 창제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자료]의 ‘ㄷ’, ‘ㄱ’, ‘ㅌ’, ‘ㅍ’, ‘ㅎ’은 『훈민정음』에서 모두 창제에 속하는 자음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자료]의 ‘ㄷ’부터 ‘ㅎ’까지의 자음자를 『훈민정음』에 비추어 분석해 보면, ‘ㄷ’, ‘ㄱ’은 치음을, ‘ㄱ’은 아음을, ‘ㅌ’은 설음을, ‘ㅍ’은 순음을, ‘ㅎ’은 후음을 나타내던 자음자임을 알 수 있다.
- ③ 『훈민정음』에서 종성을 적는 데 충분하다고 제시한 여덟 글자에는 ‘ㅇ’이 아닌 ‘ㅇ’이 사용되었다.
- ④ 『훈민정음』의 분류에 따르면 ‘ㄴ’, ‘ㄷ’으로 표기되는 자음은 설음이고, ‘ㄹ’로 표기되는 자음은 반설음이다.
- ⑤ 『훈민정음』의 분류에 따르면 ‘ㄷ’과 ‘ㄷ’은 치음을 나타내던 자음자였다. ‘ㄱ’부터 ‘ㅎ’까지는 아음, 설음, 순음, 후음을 나타내던 자음자 순서로 배열되었음을 알 수 있다.

11 언어

본문 92~94쪽

01 ④

02 ④

03 ②

04 ④

05 ⑤

01 음운의 변천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쌀눈’은 ‘ㄹ’ 탈락이 적용되지 않은 형태로, 순행적 유음화의 적용을 받아 [쌀룬]으로 받음한다. 따라서 ㉔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잘 넘는다’를 ‘잘’에 후행하는 ‘님’에 유음화가 적용된 [잘 립는다]로 받음하는 것은 순행적 유음화가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도 적용됨을 보여 주므로, ㉑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 ②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인 ‘갈-’ 뒤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 ‘-니’가 결합할 때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간의 ‘ㄹ’이 탈락하는 양상을 보여 주므로, ㉒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 ③ ‘버들’과 ‘나무’가 복합어를 형성할 때 순행적 유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어근의 ‘ㄹ’이 탈락하는 양상을 보여 주므로, ㉓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 ⑤ ‘닿는[달린]’은 ‘ㅎ’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 ‘ㄴ’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순행적 유음화가 적용됨을 보여 주므로, ㉕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다.

02 중세 국어의 음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의 ‘철리에’는 ‘ㄹ’과 인접한 ‘ㄴ’에 유음화가 일어난 사례로 볼 수 있으나, 순행적 유음화가 아니라 역행적 유음화가 일어난 사례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의 ‘아습고’는 선어말 어미 ‘-습-’ 앞에서 용언 어간 ‘알-’의 ‘ㄹ’이 탈락한 사례이다.
- ② ㉒의 ‘버드리’는 어근 ‘들’ 앞에서 체언 어근 ‘별’의 ‘ㄹ’이 탈락한 사례이다.
- ③ ㉓의 ‘실낱’은 ‘ㄴ’ 앞에서 ‘ㄹ’이 그대로 놓인 사례이다.
- ⑤ ㉕의 ‘쌀눈’은 ‘쌀-’에 ‘-눈’이 결합할 때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 ‘ㅎ’이 탈락하면서 ‘ㄹ’과 ‘ㄴ’이 인접하게 된 사례이다.

03 안은문장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나가자’는 주어와 목적어(혹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며, 안긴절 ‘사람이 더 많아지기’가 ‘전’을 수식하고 있다.

㉡ ‘되었다’는 주어와 보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며, 안긴절 ‘여럿이서 열심히 노력해 왔던’이 ‘일’을 수식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적합하다’는 주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나, 안긴절 ‘벼농사를 짓기’는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기능하고 있다.

㉣ 안긴절 ‘코앞으로 닥쳐온’은 ‘위기’를 수식하고 있으나, ‘삼았다’는 주어와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04 사동 표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에 따르면 ‘-게 하다’ 사동문은 간접 사동의 뜻으로만 해석되므로,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주동사 어근 ‘안-’에 사동 접미사 ‘-기-’를 결합한 사동사 서술어 ‘안겼다’가 쓰여 주체인 ‘의사’가 ‘어머니’로 하여금 ‘아기를 안’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낸 문장이다.

② ‘연습하다’의 접사 ‘-하-’를 ‘-시키-’로 교체한 ‘연습시키다’가 서술어로 쓰여 주체인 ‘코치’가 ‘선수들’로 하여금 ‘연습’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낸 문장이다.

③ 주동문 ‘학생들이 집에 가다.’의 용언 어간 ‘가-’에 ‘-게 하다’를 결합시켜 주체인 ‘선생님’께서 ‘학생들’로 하여금 ‘집에 가’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낸 문장이다.

⑤ ‘그 사실이 숨었다.’와 같은 주동문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대응하는 주동문을 상정할 수 없는 사동문의 예에 해당한다.

05 단어의 의미 관계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칼날’의 구성 요소인 ‘칼’과 ‘날’은 한 단어가 의미상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의미 관계인 상하 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참고로, 상하 관계를 이루는 경우로는

‘물고기-민물고기’ 등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곧바로’의 구성 요소인 ‘곧’과 ‘바로’는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 관계인 유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② ‘끓주리다’의 구성 요소인 ‘끓(다)’와 ‘주리다’는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의미 관계인 유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③ ‘여닫다’의 구성 요소인 ‘열(다)’와 ‘닫다’는 서로 짝을 이루어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의미 관계인 반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④ ‘위아래’의 구성 요소인 ‘위’와 ‘아래’는 서로 짝을 이루어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의미 관계인 반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12 언어

본문 95~98쪽

- 01 ④
 - 02 ⑤
 - 03 ④
 - 04 ①
- 05 ②

01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않아’를 발음할 때에는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ㅎ’ 탈락이 일어나고, ‘않는’을 발음할 때에는 겹받침 ‘ㄷㅎ’의 ‘ㅎ’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말 앞에서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02 용언, 단어의 구성 요소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한다’는 ‘하-+ㄷ-+다’로 분석되므로 파생 접사 0개, 어미 2개가 결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파생 접사 1개, 어미 1개가 결합되어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위대했던’의 ‘위대하-’는 ‘위대+하-’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하-’라는 파생 접사 1개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위대했던’은 어미 ‘-였-’과 ‘-던’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어미 2개를 포함하고 있다.

② ‘되-’는 파생 접사이고, ‘-어’는 어미이므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적절한 내용이다.

③ ‘-롭-’은 파생 접사이고, ‘-게’는 어미이므로 세 번째 문단

을 보면 적절한 내용이다.

④ ‘극복해야’에서 ‘극복하-’의 ‘-하-’는 파생 접사이고, ‘-어야’는 어미이므로 그 위치를 고려하면 적절한 내용이다.

03 단어의 구성 요소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위질’의 ‘-질’과 ‘망치질’의 ‘-질’은 모두 ‘그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알밤’의 ‘알-’은 ‘겉을 덮어 싹 것이나 떨어진 것을 다 제거한’의 의미를 지니고, ‘알부자’의 ‘알-’은 ‘진짜, 알짜’의 의미를 지닌다.
- ② ‘한시름’의 ‘한-’은 ‘큰’의 의미를 지니고, ‘한겨울’의 ‘한-’은 ‘한창인’의 의미를 지닌다.
- ③ ‘꽃과일’의 ‘꽃-’은 ‘처음 나온’, 또는 ‘덜 익은’의 의미를 지니고, ‘꽃사랑’의 ‘꽃-’은 ‘미숙한’, ‘깊지 않은’의 의미를 지닌다.
- ⑤ ‘지우개’의 ‘-개’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의미를 지니고, ‘오줌싸개’의 ‘-개’는 ‘그러한 행위를 특성으로 지닌 사람’의 의미를 지닌다.

04 안은문장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서 명사형 어미 ‘-기’가 결합한 명사절은 ‘노래 부르기’이다. 하지만 이 명사절은 보격 조사 ‘가’와 결합하여 보어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주어로 기능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에서는 명사형 어미 ‘-음’이 결합한 ‘내가 많이 노력하고 있음’이 목적격 조사 ‘을’과 결합하여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③ ㉡에서는 주어가 생략된 관형사절 ‘푸른’이 체언 ‘토마토’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④ ㉢에서는 문장 성분이 생략되지 않은 ‘도둑이 빈집을 침입하는’이라는 관형사절이 체언 ‘사건’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⑤ ㉣에서는 ‘키가 크다’라는 서술절이 전성 어미 없이 안겨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답 ④

답 ①

05 중세 국어 자료 탐구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현대어 풀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을’의 ‘을’은 목적격 조사가 아니다. ‘수을’은 ‘술’의 옛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음성 모음으로 이루어진 체언 뒤에 목적격 조사 ‘을’이 사용되었다는 분석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의 ‘마름’은 ‘말-+ -음’으로 분석되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③ ㉡의 ‘노퐁’은 ‘높-+ -은’으로 분석되며, 표기할 때 이어 적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④ ㉢에서 시간을 의미하는 명사 ‘적’ 뒤에 부사격 조사 ‘의’가 결합해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⑤ ㉣에서 ‘마름괘라’는 ‘마름+과+리라’로 분석되며, 접속 조사 ‘과’가 접속의 대상이 되는 마지막 말 뒤에도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13 언어

본문 99~102쪽

- 01 ① 02 ④ 03 ⑤ 04 ④
- 05 ⑤

01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온딱]과 [칙뽀]에서는 모두 음절의 끝소리 규칙, 된소리 되기,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 되기는 교체 현상이고, 자음군 단순화는 탈락 현상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의 [난닐]과 [꼰니슬]에서는 모두 음절의 끝소리 규칙, ‘ㄴ’ 첨가, 비음화가 일어나 단어별로 음운 변동이 3회 일어났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는 교체 현상이고, ‘ㄴ’ 첨가는 첨가 현상이다.
- ③ ㉢의 [쪽뽀]에서는 된소리되기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다. [반:달란]에서는 유음화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났다. 단어별로 음운 변동이 2회 일어났고, 모두 교체 현상이다.
- ④ ㉣의 [글깨]에서는 된소리되기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고, [쥐블로이]에서는 유음화와 ‘ㅎ’ 탈락이 일어났다. 단어별

로 음운 변동이 2회 일어났지만, 된소리되기와 유음화는 교체 현상이다. 자음군 단순화와 ‘ㅎ’ 탈락은 탈락 현상이다.

㉠ ㉡의 [보갑쩍]과 [합찌팝]에서는 모두 거센소리되기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났다. 단어별로 음운 변동이 2회 일어났지만, 된소리되기는 교체 현상이고 거센소리되기는 축약 현상이다.

02 관형사절을 안은 문장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관형사절 ‘언니가 고무줄로 묶어 준’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의 관형사절 ‘내가 모르는’에도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 ‘덧신’은 접두사 ‘덧-’이 결합한 파생어이다. ㉠의 ‘고무줄’은 합성어이지만 고무로 만든 줄이라는 의미이므로 앞의 어근이 뒤의 어근을 꾸며 주는 관계이다.

② ㉠에는 진행상 ‘-고 있-’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 ㉠, ㉡에서 ‘-고’로 연결된 두 절은 의미상 선후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종속적으로 연결된 것이다.

⑤ ㉠의 ‘논밭’은 ‘논과 밭’이라는 의미이고, ㉡의 ‘앞뒤’는 ‘앞과 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모두 두 어근이 의미적으로 대등하게 결합해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03 높임 표현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하십시오체는 격식체에서 높임의 등급이 가장 높다. 하십시오체보다 낮은 등급의 격식체로는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가 있다. ‘-소’는 하오체의 종결 어미이다. ‘드리다’는 객체인 ‘어머님’을 높이는 동사이다. 주체를 높이는 조사와 어미는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기준 4’를 충족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조사 ‘께서’와 어미 ‘-시-’가 사용되어 문장의 주체인 ‘아저씨’를 높였으므로 ‘기준 4’를 충족한다.

② 격식체인 하십시오체를 사용한 문장이므로, ‘기준 1’은 충족하지만 ‘기준 2’를 충족하지 않는다.

③ 하계체를 사용한 문장으로서, ‘기준 1’과 ‘기준 2’를 충족한다. 그러나 객체를 높이는 동사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기준 3’을 충족하지 않는다.

④ 비격식체인 해오체를 사용한 문장이므로 ‘기준 1’을 충족하지 않는다.

04 관계언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라)의 ‘쉽지가’, (마)의 ‘빨리들’과 같은 예시에서 주격 조사와 목적격 조사가 붙을 수 없는 말에 ‘가’와 ‘를’이 붙은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지문에서 조사를 격 조사, 보조사, 접속 조사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② 지문에서 격 조사와 같은 형태의 조사가 격 조사가 나타날 수 없는 자리에 나타날 경우 그것을 보조사로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격 조사가 나타날 수 없는 자리에 보조사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지문에서 부사격 조사는 다른 격 조사에 비하여 실질적인 의미가 강하게 느껴져 의미에 따라 부사격 조사를 세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⑤ 지문에서 보조사는 특정한 의미를 더해 주기만 하므로 여러 문장 성분에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보조사가 격을 나타낸다고 본 것은 잘못 이해한 것이다.

05 중세 국어 자료 탐구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에는 없는 형태의 보조사가 존재하였음을 지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의 ‘아들옴’과 ㉡의 ‘王뵈’에 쓰인 조사 ‘옴’과 ‘뵈’는 모두 보조사이다. 보조사는 주어, 목적어 등의 자격을 가지도록 해 주는 기능이 없고, 특정한 의미를 더해 주기만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 ‘아츰’에 부사격 조사 ‘익’이 쓰였고, ‘虛空애’에 부사격 조사 ‘애’가 쓰였다.

② ㉠의 ‘아츰’은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어이고, ㉠의 ‘나논’은 서술어 ‘놀이고’의 주체를 나타내는 주어이다.

③ ㉡에서 관형격 조사 ‘익’과 목적격 조사 ‘를’이 사용되었다.

④ ㉡에서는 목적격 조사 ‘를’이 쓰였고, ㉡에서는 목적격 조사 ‘를’이 쓰였다. ‘를’과 ‘를’은 모음 조화의 영향을 받아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14 언어

본문 103~106쪽

- 01 ③
- 02 ④
- 03 ⑤
- 04 ⑤
- 05 ③

01 단어의 의미 관계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3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상보 반의어는 중간 상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간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인 ‘미지근하다’가 존재하는 ‘뜨겁다’와 ‘차갑다’는 상보 반의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뜨겁다’와 ‘차갑다’는 등급 반의어로 분류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는 하나의 기준이나 의미 특성의 차이로 대립을 이루므로, [성별]뿐만 아니라 [세대]의 측면에서도 이질성을 지니는 ‘아버지’와 ‘할머니’는 반의 관계를 이룬다고 할 수 없다.

② 2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등급 반의어를 이루는 단어 쌍의 경우 한 단어가 포함된 문장의 진술은 상대 반의어의 부정 진술을 함의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말이 빠르다.’의 부정 진술인 ‘말이 빠르지 않다.’가 반드시 ‘말이 느리다.’를 함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빠르다’와 ‘느리다’는 등급 반의어로 분류할 수 있다.

④ 4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관계 반의어는 두 단어 중에서 하나가 성립하면 반대편의 단어도 반드시 존재하는, 상호 의존적인 단어 쌍을 가리키므로, 어떤 임대인에는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관계 반의어로 분류할 수 있다.

⑤ 5문단의 내용에 따르면 등급 반의어 중에서도 척도를 나타내는 단어들은 둘 중 어느 한 단어가 대표적인 용법으로 쓰인다. 따라서 척도 명사로 ‘넓이’는 쓰이지만 *‘좁이’는 쓰이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넓다’가 ‘좁다’보다 대표적으로 쓰이는 단어라고 볼 수 있다.

02 단어의 의미 관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그것보다 더 오른쪽으로/왼쪽으로 꺾어라.’와 같은 비교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오른쪽’과 ‘왼쪽’은 ㉠에 해당하는 예

로 볼 수 있다. 또한 ‘오른쪽’과 ‘왼쪽’은 배타적 반의 관계에 놓인다기보다는 상대적인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보 반의어가 아니라 관계 반의어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두 단어 사이에 등급의 정도가 존재하고 ‘여기가 저기보다 더 밝다./어둡다.’와 같은 비교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밝다’와 ‘어둡다’는 ㉠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있다.

② 두 단어 사이에 등급의 정도가 존재하고 ‘학교가 도서관보다 더 가깝다./멀다.’와 같은 비교 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가깝다’와 ‘멀다’는 ㉠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있다.

③ 두 단어가 배타적 반의 관계에 있고 ‘국어 과목은 수학 과목보다 더 합격이다./불합격이다.’ 따위의 비교 표현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합격’과 ‘불합격’은 ㉠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있다.

⑤ 두 단어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값은 을보다 더 남편이다./아내이다.’ 따위의 비교 표현이 자연스럽게 않은 것으로 보아, ‘남편’과 ‘아내’는 ㉡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있다.

03 형태소의 이해

답 ⑥

정답이 정답인 이유

‘들여다보였다’는 ‘들여다보이-’의 끝음절 모음이 ‘ㅣ’라서 선행어말 어미로 ‘-었-’이 선택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그는’은 종성이 없는 음절 뒤에서 보조사로 ‘는’이 선택된 것이다.

② ‘원인과’는 종성이 있는 음절 뒤에서 접속 조사로 ‘과’가 선택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종성이 있는 음절 뒤에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가 선택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③ ‘거짓말로’는 종성이 ‘ㄹ’인 음절 뒤에서 부사격 조사로 ‘로’가 선택된 것으로, 종성이 있는 음절 뒤인데도 종성이 없는 음절 뒤에서와 같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가 선택되었다.

④ ‘사람이어서’는 ‘사람이-’의 끝음절 모음이 ‘ㅣ’라서 연결어미로 ‘-어서’가 선택된 것이다.

04 안은문장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안긴절인 ‘자기 아들이 어른이 되었음’은 ‘을’과 결합하

여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절이다. ㉔에서는 안긴절 ‘해가 중천에 뜨도록’이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에는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절인 ‘내가 키우는’이 있다.
- ㉒에는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절인 ‘저 노을이 다 지기’가 있다.
- ② ㉓의 안긴절 ‘저 노을이 다 지기’에는 관형어 ‘저’가 들어 있다. ㉔의 안긴절 ‘자기 아들이 어른이 되었음’에는 관형어 ‘자기’가 들어 있다.
- ③ ㉑에는 서술절 ‘눈이 정말 크다’ 속에 부사어 ‘정말’이, ㉒에는 명사절 ‘저 노을이 다 지기’ 속에 부사어 ‘다’가 들어 있다.
- ④ ㉑에는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절인 ‘내가 키우는’이 있고, ㉔에는 주어 생략된 안긴절인 ‘게으른’이 있다.

05 중세 국어의 문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구비’가 관형어 ‘山川’의 수식을 받고 있으며, 뒤에 격 조사 ‘에’가 결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비’는 명사로 쓰인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구비’의 ‘의’는 ‘굽-’에 결합하여 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 ‘-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구비’는 평칭의 유정 체언 뒤에 오는 관형격 조사가 쓰인 예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노퍽’이 조사 ‘눈’과 결합하여 서술어 ‘흔 자히오’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퍽’은 명사로 쓰인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노퍽’의 ‘익’은 ‘높-’에 결합하여 명사를 파생하는 접미사 ‘-익’임을 알 수 있다.
- ② ‘너비’가 서술어 ‘떠니라’를 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너비’는 부사어로 쓰인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너비’의 ‘이’는 ‘넙-’에 결합하여 부사를 파생하는 접미사 ‘-이’임을 알 수 있다.
- ④ ‘나중’이 평칭의 유정 체언이 아니며, ‘나조희’가 서술어 ‘넉고’를 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조희’는 부사어로 쓰인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나조희’의 ‘익’은 ‘나중’ 뒤에서 부사격 조사로 쓰인 것임을 알 수 있다.
- ⑤ ‘말썽’은 ‘공교하고 미묘하’다는 상태/성질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그 말썽미’는 주어에 해당한다. 이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말썽미’의 ‘이’는 자음으로 끝난 체언 ‘말썽’ 뒤에 결합한 주격 조사 ‘이’임을 알 수 있다.

15 언어

본문 107~109쪽

- 01 ④ 02 ④ 03 ① 04 ③
- 05 ②

01 문장 성분의 종류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문장에서 ‘불빛 비슷한’은 관형사절이고 절 내부에서 ‘불빛’은 ‘비슷한’이 요구하는 필수적 부사어이다. 따라서 관형사절에 포함된 목적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어둠 속에서’는 서술어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므로 1차 성분에 해당한다.
- ② ‘불빛 비슷한 것이’는 ‘보였다’가 요구하는 주어이므로 1차 성분에 해당한다.
- ③ ‘어둠’은 체언 ‘속’을 수식하는 관형어이므로 2차 성분에 해당한다.
- ⑤ ‘불빛 비슷한’은 ‘것’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2차 성분에 해당한다.

02 문장 성분별 특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차다’가 ‘발로 내어 지르거나 받아 올린다.’의 의미를 지닐 때에는 목적어만을 요구한다. 따라서 ‘발로’는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싸우다’가 ‘말, 힘, 무기 따위를 가지고 서로 이기려고 다투다.’의 의미를 지닐 때에는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② ‘생기다’가 ‘사람이나 사물의 생김새가 어떠한 모양으로 되다.’의 의미를 지닐 때에는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③ ‘넣다’가 ‘한정된 공간 속으로 들게 하다.’의 의미를 지닐 때에는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⑤ ‘굴다’가 ‘그러하게 행동하거나 대하다.’의 의미를 지닐 때에는 필수적 부사어를 요구하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03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언짱고’를 발음할 때에는 ‘ㅎ’과 ‘ㄱ’이 결합하여 [ㅋ]으로 발음되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 [언짱코]로 발음되고, ‘밝고’를 발음할 때에는 ‘밝고 → 밝꼬 → [발꼬]’와 같이 된소리되기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발꼬]로 발음된다. 따라서 ㉠에는 [언짱코], ㉡에는 “‘언짱고’를 발음할 때에는 거센소리되기가 일어나고, ‘밝고’를 발음할 때에는 된소리되기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04 품사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너무 늙은 호박은 맛이 좋지 않다.’에서의 ‘늙은’은 ‘식물 따위가 지나치게 익은 상태가 되다.’의 의미를 지니는 동사이고, ‘이제는 나도 늙어서 예전 같지 않다.’의 ‘늙어서’는 ‘한창때를 지나 쇠퇴하다.’의 의미를 지니는 동사이다. 따라서 둘 다 동사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크다’는 형용사, ‘크지’는 동사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② ‘일곱 개’의 ‘일곱’은 관형사이고, ‘일곱이다’의 ‘일곱’은 수사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④ ‘무명만큼’의 ‘만큼’은 조사이고, ‘들릴 만큼’의 ‘만큼’은 의존 명사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 ⑤ ‘가족적이어서’의 ‘가족적’은 명사이고, ‘가족적 분위기’의 ‘가족적’은 관형사이므로 ㉠의 사례로 적절하다.

05 중세 국어 자료 탐구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잇-’은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이다. 이 발화의 화자는 ‘羅雲(나운)’이므로 ‘羅雲(나운)’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서 ‘부터’는 높임의 대상이 되는 명사로 뒤에 오는 ‘法’을 수식하기 위해 관형격 조사 ‘스’를 사용하였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③ ㉢을 보면 ‘△’, ‘○’ 등이 사용되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④ ㉡의 ‘부테’는 ‘부터 + ㅣ’로 분석된다. ‘ㄷ’ 뒤에서 주격 조사의 형태가 ‘ㅣ’로 실현되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 ⑤ ㉡에서는 체언 ‘몸’과 조사 ‘올’이 결합해 있는데 양성 모음끼리 결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적절한 내용이다.

01 매체

본문 110~116쪽

- 01 ②
- 02 ④
- 03 ④
- 04 ④
- 05 ③

01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기자는 나무 의사가 외과 수술을 진행하는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청자가 마치 현장에서 직접 보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진행자가 뉴스의 소재인 ‘나무 의사’와 관련이 있는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 ③ 기자가 뉴스의 소재인 ‘나무 의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 ④ 기자가 뉴스의 소재인 ‘나무 의사’가 관리하는 대상의 다양한 유형을 제시하고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 ⑤ 산림청 연구원은 뉴스의 소재인 ‘나무 의사’와 관련된 나무 의사 제도가 도입된 배경 및 운영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확대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 예측하고 있지는 않다.

02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시청자 1’과 ‘시청자 2’ 모두 뉴스에서 다루지 않은 정보가 있음을 밝히지도 않았고, 뉴스의 관점이 편향되어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도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시청자 1’은 생활권 수목에 대하여 자신이 누리집 검색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소유한 나무도 나무 의사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고 있다.
- ② ‘시청자 2’는 최근 녹색 일자리가 주목받는 동향을 언급하며,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하여 뉴스를 통해 지구 환경과 생태계 보호에 이바지하는 직업에 대해 알게 되어 유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 ③ ‘시청자 3’은 기자가 뉴스에서 ‘나무는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열섬 현상을 완화해 에너지 소비 감소에 도움을 주어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기능을’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나무가 도심의 열섬 현상을 얼마만큼 완화하는지 알 수 없어 막연하네요.’라며 탄소 배출 저감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⑤ ‘시청자 2’는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았음을 언급하며 뉴스의 내용이 유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시청자 3’은 자신과 같이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뉴스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03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뉴스에서 기자가 언급한 나무 의사 자격시험의 응시 요건에 대해, 안내 자료에서는 ‘수목 진료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수목 치료 기술자 중 경력자 또는 산림·조경 분야 자격 소지자’와 같이 학력, 경력, 자격 등의 항목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응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의 순서대로 정보를 나열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뉴스에서 기자가 언급한 2025년 나무 의사 자격시험 일정에 대해, 안내 자료에서 2025년에 실시되는 나무 의사 자격시험 시행 일자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② 뉴스에서 기자가 언급한 지자체별 나무 의사 양성 기관에 대해, 안내 자료에서 지도를 활용하여 지자체별 양성 기관의 위치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③ 뉴스에서는 산림청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안내 자료에서 QR 코드를 첨부하여 이를 스마트폰 기기로 스캔하면 산림청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⑤ 뉴스에서는 나무 의사 양성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 시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안내 자료에서 필수 교육 시간이 총 150시간 이상임을 제시하고 있다.

04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를 보면, 영상이 재생되는 쇼트폼 플랫폼에 댓글 기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를 바탕으로 할 때 댓글 기능을 통해 수용자들 간의 소통이 가능함을 알 수 있으나, 이를 영상 내용의 즉각적인 수정을 위한 수용자들 간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를 보면, 요리 레시피를 알려 주는 정보성 쇼트폼이 재생되고 있다. (가)를 바탕으로 할 때 (나)를 시청하는 수용자들은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용이한 생활 정보를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를 보면, 1분 미만의 영상 재생 시간과 세로형의 짝 찬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가)를 바탕으로 할 때 이는 수용자들의 끊임없는 영상 시청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나)를 보면, 영상이 재생되는 쇼트폼 플랫폼 내에 영상을 누리 소통망(SNS)으로 전달하는 기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를 바탕으로 할 때 이는 영상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수용자들에게 기업의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나)를 보면, 영상이 재생되는 쇼트폼 플랫폼 내에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지금 구매하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를 바탕으로 할 때 이는 쇼트폼 시청이 상품의 구매로 바로 이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05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체중이 10% 감소’, ‘공복 혈당은 28% 저하’ 등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지만, 이는 소비자가 천혜향을 구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수치화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천혜향을 먹으면 늙지 않아요~.’와 같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향이 천 리를 간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천혜향’, ‘과육이 부드럽고 과즙이 많으며 은은한 향이 특징’ 등과 같이 표면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2024년 □□ 농산 청과 부문 판매 1위 달성’과 같이 판매 실적을 강조하는 내용을 부각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에는 광고하는 상품의 상업성을 높이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까다로운 품질 관리를 통해 고품질, 고당도의 천혜향만을 엄선’한다고 했으나, 이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02 매체

본문 117~123쪽

- 01 ④
- 02 ④
- 03 ③
- 04 ①
- 05 ①

01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장면 7]을 보면, 「송호도」의 일부를 확대하여 화면에 그림의 특정 부분을 선별하여 제시하고 있다. 교수의 설명 중 일부를 항목화하여 표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장면 4]를 보면, 교수의 신간을 사진으로 화면에 제시하여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장면 1]을 보면, 도입부에 배경 음악을 삽입하여 경쾌한 분위기로 방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장면 6]과 [장면 7]을 보면, 「송호도」를 화면에 제시하여 시청자가 작품을 보면서 교수의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장면 2]를 보면, 교수가 자신을 소개할 때 교수의 이름을 자막으로 제시하여 시청자가 교수의 이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매체 언어생활의 특징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은 미술사적 지식을 숙지한다면 명작 감상에 도움이 된다는 교수의 설명을 관용적 표현을 활용하여 요약적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용적 표현을 활용하여 안목을 기르기 위한 반복적 노력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은 '400만 부 넘게'라는 대략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교수의 저서에 대한 대중적 인기를 보여 주면서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
- ② ㉒은 '안목을 갖춘 길잡이와 같은 친절한 안내서'라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책을 집필할 목적이 무엇인지를 시청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 ③ ㉓은 '누구나 작품을 보는 자신만의 눈을 갖고 싶어 합니다.'와 같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바람이라 생각하는 점을 언급하며 안목을 기르는 방법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다.
- ⑤ ㉔은 '저는 책에서 ... 인상적이었습니다.'와 같이 자신에게

인상 깊었던 부분을 언급하고, 연이어 '시청자 여러분께 「송호도」를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와 같은 질문을 던지며 대화의 화제를 시청자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그림인 「송호도」로 전환하고 있다.

03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시청자 3'은 방송에서 소개된 「송호도」를 자신이 국립 중앙 박물관에서 관람한 호랑이 그림과 관련지어 감상하고, ◇◇ 미술관에 가서 「송호도」를 직접 볼 생각이라는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시청자 1'은 자신처럼 미술사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으나, 교수의 근황을 알려 주어서 방송이 유익했다고 평가한 것은 아니다.
- ② '시청자 2'는 교수의 정년 퇴임 기념 공개 강연이 있음을 언급하고 참석을 권유하고 있으나, 이는 교수가 방송에서 언급한 신간 집필 계획과 관련하여 자신의 바람을 드러낸 것이 아니다.
- ④ '시청자 2'는 화면을 통해 교수를 볼 수 있어 좋았다는 자신의 감정을 이모티콘(^)과 함께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시청자 1'은 방송을 시청한 것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이모티콘과 함께 표현하고 있지 않다.
- ⑤ '시청자 2'는 해당 방송을 다른 이에게 추천하고 있으나, '시청자 3'은 교수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방송을 다른 이에게 추천하고 있지 않다.

04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같은 기자가 작성한 다른 기사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가 제시되어 있지만, 기사 내용과 관련된 심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웹 페이지 화면에 있는 기사의 입력 시간과 수정 시간을 통해 기사가 수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기사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수용자는 기사의 내용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다.
- ④ 기사 아래의 '좋아요'와 '싫어요' 수치를 통해 수용자는 기사에 대한 다른 수용자들의 선호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웹 페이지 화면에 있는 본문 듣기 기능을 활용하여 수용자는 음성 언어의 형태로도 기사 내용을 수용할 수 있다.

05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독자 1’은 현재 해양 생태계로 유출되는 폐플라스틱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폐플라스틱의 재활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기사의 시의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독자 2’는 기사에서 제시한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에 무조건 찬성하는 입장만 있지는 않다고 언급하며 기사 내용이 찬반 양측의 의견을 모두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사의 공정성 측면을 지적하고 있을 뿐,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③ ‘독자 3’은 자신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기사에서 일체형 병뚜껑과 관련한 국내의 기술 개발 현황과 정부 정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을 아쉬워하며 기사에서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④ ‘독자 1’과 ‘독자 2’는 모두 기사에서 인용한 전문가의 말과 관련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다.

⑤ ‘독자 2’는 자신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기사 내용에서 페트병의 뚜껑을 닫아 분리배출하는 방식에 찬성하지 않는 입장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기사 내용의 공정성 측면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자 3’은 자신의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기사에서 다루어진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 자막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시청자가 인터뷰 대상자의 업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장면 3]에서 인터뷰 대상자가 옛날 책을 보존 처리하는 작업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 주고 있다.

③ 시청자가 인터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장면 2]에서 인터뷰 대상자의 근무지인 □□ 박물관과 이름 김○○, 직책이 연구원이라는 것을 자막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시청자가 인터뷰 대상자와 진행자가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장면 5]에서 질문을 던지는 진행자와 질문에 답하는 인터뷰 대상자의 모습을 한 화면에 제시하고 있다.

⑤ 시청자가 인터뷰 대상자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진행자는 네 번째 발화에서 방송 시청자 게시판에 가장 많이 올라온 질문임을 밝히며 인터뷰 대상자에게 지금까지의 국가유산 보존 작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작업을 질문하고 있다.

02 매체 언어생활의 특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옛날 책을 보존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인터뷰 대상자의 설명을 들은 뒤, ㉞에서 진행자는 어려운 과정들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는 추측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인터뷰 대상자의 답변 내용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진행자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㉞에서 진행자는 인터뷰 대상자가 하얀 가운을 입고 나왔음을 언급하며 국가유산 보존가가 어떤 직업인지를 질문하고 있다. 이는 인터뷰 대상자의 외양적 특징인 옷차림을 언급하면서 궁금한 부분을 질문한 것이다.

② ㉞에서 진행자는 지류 국가유산 보존 업무를 맡고 있다는 연구원의 업무 분야를 언급하면서 종이는 손상되기 쉬워서 복원에도 섬세한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밝히고 있다. 이는 업무가 가진 특성에 관해 추측한 것이다.

④ 『난중일기』를 보존 처리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감동이 기억난다는 인터뷰 대상자의 답변을 들은 뒤, ㉞에서 진행자는 연구원님의 말씀과 표정에서 그때의 감동이 아직도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말하며 연구원을 관찰한 바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면서 『난중일기』 보존 작업에 참여했다니 놀라다며 인터뷰 대상자의 발화 내용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03 매체

본문 124~130쪽

- 01 ②
- 02 ③
- 03 ②
- 04 ③
- 05 ③

01 정보 구성 언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이 방송에서 인터뷰 대상자인 연구원이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

⑤ ㉔에서 진행자는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라며 정중하게 부탁하는 표현으로 인터뷰 대상자에게 국가유산 보존가가 되고 싶은 시청자를 위한 조언을 요청하고 있다.

03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시우’는 세 번째 발화에서 역사와 국가유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시청하면 도움이 될 것 같으며 방송 내용의 유용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 뒤 방송에서 국가유산 보존가들의 업무 분야가 지류 말고도 여러 가지로 나뉜다고 했는데 지류 보존과 정만 다른 점은 아쉽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방송에서 다른 정보의 양이 충분했는지를 점검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도윤’은 첫 번째 발화에서 현직 국가유산 보존가가 직접 출연해서 직업을 설명하여 흥미로웠다는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방송 출연자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방송 내용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이다. ‘도윤’이 방송 내용이 믿을 만한 내용인지를 지적하고 있지는 않다.

③ ‘도윤’은 두 번째 발화에서 최근에 이순신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를 봤음을 언급하며 방송 출연자의 말에 공감할 수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발화에서는 지난 방송에서 직업의 전망을 다루었음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직업의 전망을 다루지 않아 아쉬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방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있어 아쉬웠음을 드러내는 발화로, 방송 출연자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④ ‘시우’는 세 번째 발화에서 자신이 건축에 관심이 있어서 목재류 국가유산의 보존 과정이 궁금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평소 관심사와 관련해 방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이 있어 아쉬웠음을 드러낸 것이다. ‘시우’가 자신의 평소 관심사를 바탕으로 방송 내용이 정확한 정보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⑤ ‘도윤’은 세 번째 발화에서 국가유산 보존가와 관련된 전공에는 어떤 게 있는지, 자격증에는 무엇이 있는지 따로 조사하려는 생각을 밝히고 있다. 또 네 번째 발화에서 국가유산 보존가라는 직업의 전망을 조사해 보려는 생각을 밝히고 있다. 이는 방송을 보고 자신이 궁금한 점을 조사해 보려는 것으로, 방송 출연자의 견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조사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도윤’이 방송 출연자의 견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고 있지도 않다.

04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에는 괴로워하는 사람의 모습 주변으로 불 모양 그림을 배치하고 그 안에 ‘피부 질환’과 ‘소화가 질환’이라는 글자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비유적인 그림을 활용하여 매운맛 증독으로 인해 예상되는 부정적 결과를 강조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2문단에서 매운맛 섭취로 인해 피부 질환 증세가 악화되고 소화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질환의 발병률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가)의 1문단에서 매운 음식을 섭취하면 엔도르핀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에너지 대사가 활발해지고 쾌감을 느끼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매운 음식의 섭취가 신체 대사에 미치는 이점을 문단을 나눠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가)의 1문단에서는 매운맛을 내는 성분들이 피부에 자극을 주어 통증을 느끼게 한다는 점을, 2문단에서는 매운맛 섭취로 인해 피부 질환의 증세가 악화될 수 있고 소화가 잘되지 않으며 소화 기관이 오래 자극될 수 있음을 글자의 굵기를 달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는 매운맛 섭취로 인한 단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가)에서 사람마다 매운 정도를 다르게 느끼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달리하여 부각하고 있지도 않다.

⑤ (가)의 1문단에서 매운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입맛을 겨냥한 음식들이 시중에서 인기를 끌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2문단에서는 매운맛 과자 먹기에 도전한 청소년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하이퍼링크 기능을 활용하여 안내하고 있다. (가)에서 매운 음식이 유행하고 있음을 주제로 다른 기사를 하이퍼링크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05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의 ‘장면 4’에서 매운맛이 피부 질환 증세를 악화시키고 소화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을 화면의 글자와 내레이션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뉴스 보도 화면 이미지를 함께 제시해 매운맛으로 인한 자극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나)에서 전문가를 인터뷰한 시청각 자료를 삽입하여 보여 주고 있는 부분은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1문단에서 매운맛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입맛을 겨냥한 음식들이 인기를 끌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나)의 ‘장면 1’에서는 매운 음식의 구체적인 예인 마라탕, 떡볶이, 라면을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다.
- ② (가)의 1문단에서 매운맛이 통증을 유발하면 엔도르핀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쾌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반응이 반복되면 매운맛에 대한 민감도가 점점 떨어져 더 자주, 더 강한 매운맛을 찾게 되면서 중독이 일어난다고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나)의 ‘장면 3’에서는 이러한 중독 과정을 인과 관계에 따라 순서대로 구조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④ (가)의 1문단에서 매운 음식을 먹으면 엔도르핀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쾌감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반응이 반복되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매운 음식을 찾게 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나)의 ‘장면 2’에서는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공포 영화를 볼 때 쾌감을 느끼는 이유를 설명한 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매운맛을 찾게 되는 이유도 매운 음식을 섭취한 후 느끼는 쾌감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여 수용자에게 유사한 상황을 환기하면서 정보를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 ⑤ (가)의 3문단에서 매운맛이 주는 쾌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을 조절하는 것이 좋고, 불가피하게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나)의 ‘장면 5’에서는 운동, 명상 등 매운맛 중독 방지를 위한 대책을 화면에서 정리해 제시하고 내레이션으로도 언급함으로써 강조할 내용을 부각하고 있다.

에서 ‘충간 소음의 71.6%가 발걸음 소리라는 사실 아셨나요?’라는 문구는 수용자에게 발걸음 소리가 충간 소음의 큰 원인임을 직접적으로 알려 주어 문제의식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다. 질문의 형식으로 수용자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지만, 광고에서 다루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숨긴 채로 수용자에게 추리하게 하는 문구는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는 늦은 밤에 청소기를 사용하는 행위가 충간 소음을 유발하여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가)의 문구에서 ‘오늘 밤도 공사 중이십니까?’라는 질문은 광고에서 다루는 문제에 대해 수용자가 궁금증과 관심을 가지게 유도하고 있으므로 ㉠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나)는 위층 집의 바닥이 아래층 집 주민에게는 천장이라는 점을 일깨우며 이웃이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소파가 천장에 거꾸로 놓여 있는 기발한 이미지를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으므로 ㉡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가)는 늦은 밤에 청소기를 사용하는 행위가 이웃에게는 공사 현장의 소음처럼 느껴진다는 점을 청소기가 굴착기 모습으로 벽에 비친 이미지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다)는 위층의 발걸음 소리가 아래층 이웃에게는 머리 위를 밟고 걷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음을 발밑에 사람의 머리가 놓인 이미지를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다) 모두 ㉡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나)는 문구에서 소음과 발음이 같은 ‘소(소)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충간 소음을 줄여 이웃을 배려하자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다)는 ‘발걸음’과 발음이 유사한 ‘첫걸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발걸음 소리를 줄이려는 노력이 이웃을 위한 배려의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나)와 (다) 모두 ㉡을 확인할 수 있다.

04 매체 본문 131~138쪽

01 ③ 02 ⑤ 03 ③ 04 ④

05 ③

01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다)는 발걸음 소리가 충간 소음의 큰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웃을 위해 배려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

02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8에서 자막 및 음성으로 제시된 ‘이웃 간의 새로운 사랑법’이라는 내용은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가로등 불빛 아래 아파트를 올려다보는 경비원의 행동은 자막 및 음성의 내용과 상반되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장면에서 충간 소음 문제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임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 #3, #5에서 자막 및 음성으로 집에서 까치밭로 돌아다니는 행동, 사진 거는 것을 미루는 행동, 기타를 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이유를 질문한 뒤, #2, #4, #6에서 아랫집 초보 아빠, 수험생, 면접을 앞둔 청년을 배려해 소음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앞 장면에서 질문을 제시하여 시청자의 궁금증을 유발한 뒤 다음 장면에서 답변을 제시하는 방식을 반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아랫집 주민의 입장을 배려하는 윗집 주민의 입장을 강조하여 전달하는 것이다.
- ② #1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까치밭로 돌아다니는 아이의 동적인 모습을 보여 준 뒤, 카메라 앵글이 아래 방향으로 내려오며 #2의 잠든 아빠와 가만히 누운 아기의 모습으로 장면이 연결되고 있다. 이는 두 장면을 연결함으로써 동적인 윗집 분위기와 정적인 아랫집 분위기를 대비하여 보여 주는 것이다.
- ③ #5에서 자막 및 음성으로 오디션을 코앞에 두고 있는 윗집 남자의 상황을 언급한 뒤, #6에서도 자막 및 음성으로 내일 면접을 앞둔 아랫집 남자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윗집 남자와 아랫집 남자 모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 ④ #7에서 카메라 앵글이 아파트 건물 외관을 하강하는 것은 위층에서 아래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카메라의 움직임을 통해 보여 준 것이다. 또한 이 장면에서는 음성으로 제시하는 내용 중 ‘층 간 내 리 사랑’이라는 부분만 자막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나머지 장면들과 달리 일부만을 자막으로 보여 줌으로써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다.

0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진행자는 첫 번째 발화에서 현재 80분 정도가 접속 중이라고 언급한 뒤, 일곱 번째 발화에서 동시 접속자가 150명을 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는 실시간으로 방송에 접속한 대략의 시청자 수를 확인하여 언급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방송을 시작할 때 진행자와 선생님이 인사를 건네며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진행자의 첫 번째 발화와 [화면 1]을 통해 선생님이 스튜디오 오에서 진행자와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진행자는 여섯 번째 발화에서 시청자 중 특정인의 채팅을 선정해 선생님에게 질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송에서 진행자는 선생님이나 시청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야기할 뿐, 시청

자 중 특정인을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소통하면서 정보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 ⑤ 진행자는 마지막 발화에서 정답을 맞힌 시청자 중 상품을 받을 사람은 방송 종료 후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하며 시청자에게 다음 방송에 대한 시청과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송에서 진행자가 다음 방송에서 다룰 주제를 예고하고 있지는 않다.

04 매체 언어와 개인적·사회적 소통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선생님은 낮에 졸린 게 질병 때문일 수도 있냐는 시청자의 질문에 대해, 여섯 번째 발화에서 좋은 지적이라고 말하며 답변하고 있다. 이는 시청자가 제기한 의문에 대해 칭찬하며 식후 졸린 증상이 질병과 관련 있는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다. 이 방송에서 시청자가 선생님이 언급한 내용의 오류를 지적한 부분은 없고, 선생님이 앞서 했던 발언의 내용을 정정하고 있는 부분도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진행자의 첫 번째 발화에서 방송을 시작할 때 시청자에게 자신의 목소리가 잘 들리냐고 질문을 던져 음성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 ② 진행자는 마지막 발화에서 시청자 쿼즈를 낸 후, 많은 시청자가 채팅 창에 답을 올리고 있다며 시청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 뒤 정답을 맞힌 시청자 중 상품을 받을 사람은 방송 종료 후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하며 시청자에게 다음 방송에 대한 많은 시청과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 ③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졸린 느낌이 더 심한 이유를 묻는 시청자의 질문에 대해, 선생님은 세 번째 발화에서 오렉신이라는 물질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탄수화물 외에도 단백질 섭취가 식곤증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음을 추가 정보로 제공하고 있다.
- ⑤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시청자의 반응에 대해, 선생님은 칭찬해 주어 고맙다고 화답하였다. 그리고 선생님도 사랑한다고 말하며 자신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시청자와 정서적인 유대를 형성하고 있다.

05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과 관련하여 선생님은 세 번째 발화에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졸린 느낌이 더 심한 이유에 대한 시청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또한 여섯 번째 발화에서 낮에 졸린 것이 질병 때문일 수도 있다는 시청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선생님님이 두 번째 발화에서 많은 학생이 식곤증을 겪는다는 점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이를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진행자가 두 번째 발화에서 오늘의 건강 고민을 제시할 때, [화면 2]의 슬라이드를 통해 건강 고민의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고 있다.
- ② 선생님님이 네 번째 발화에서 식곤증 증상의 원인에 대해 설명할 때, [화면 3]에 트립토판이 많이 함유된 음식의 예를 사진으로 제시해 시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 ④ 선생님님이 다섯 번째 발화에서 식곤증을 극복하는 방법 중 식사 후에 할 수 있는 스트레칭에 대해 언급할 때, [화면 4]에 스트레칭 방법을 동영상으로 보여 주어 생동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 ⑤ 진행자의 마지막 발화에서 채팅 창을 통해 안내된 하이퍼링크를 클릭하면 누리집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어 오늘 방송을 다시 시청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송을 다시 볼 수 있는 경로를 하이퍼링크로 제시해 시청자가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5 매체

문문 139~143쪽

- 01 ⑤ 02 ③ 03 ④ 04 ①
05 ③

01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장면 6]에서 기자가 리셀이 생겨난 배경을 언급하고, ○○ 위원회의 시정 요구가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보아야겠다고 한 것은 진행자의 발화에 없는 정보를 언급한 것이지만, 기자의 언급이 뉴스 수용자가 보도를 접한 후 취할 수 있는 선택지의 폭을 넓힌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장면 1]에서는 'A사의 리셀 금지 규정이 불러온 후폭풍'이라는 자막을 제시하였다. 이는 A사에서 리셀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제재하는 규정을 만든 이후 ○○ 위원회에서 의류업체들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전체 뉴스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수용자는 [장면 1]의 자막을 통해 보도 내용을 개괄할 수 있다.
- ② [장면 2]에서는 보도의 소재가 되는 A사의 규정을 제시하고, 규정 중 리셀 제재에 관한 내용을 자막으로 간략히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수용자는 A사에서 새로 제정한 규정이 무엇인지를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
- ③ [장면 3]에서는 A사의 리셀 제한 규정에 반대하는 소비자의 인터뷰가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용자는 이전 장면에서 보도된 내용과 관련한 생생한 반응을 접할 수 있다.
- ④ [장면 4]와 [장면 5]에서는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을 자막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때 발화 맥락에서 생략된 내용은 자막 속에서 괄호 처리하여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수용자는 인터뷰 대상자가 한 발언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02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장면 3]에 소비자의 인터뷰가 제시되어 있으나 인터뷰에서 소비자는 자신의 실제 경험을 사례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기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기반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생산하고자 정부 산하 △△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 리셀 시장의 규모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진행자는 보도를 시작하며 얼마 전에 있었던, A사의 리셀 제한 규정 제정과 관련된 논란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수용자의 관심을 얻고자 시의성을 고려하여 뉴스 보도의 대상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기자는 쟁점이 되는 화제에 관해 공정성 있는 정보를 생산하고자, 리셀 제한 규정이 부당하다고 본 ○○ 위원회 담당자의 견해에 이어 리셀에 대한 제재가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박▽▽ 교수의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기자는 뉴스의 수용자에게 ○○ 위원회의 결정이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질지 지켜보아야겠다고 하였다. 이는 뉴스의 수용자가 문제 상황에 공감하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뉴스를 구성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0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에서 교수는 ○○ 위원회의 견해 중 일부를 인용하여 제시하며 보조사 '는'을 통해 그 부분에 한하여 동의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내었다. ㉔의 보조사 '는'은 ○○ 위원회의 견해 중에서 자신의 관점과는 다른 부분이 있음을 드러내기 전에, 자신이 인용한 견해에 한정하여 동의한다는 뜻을 드러내는 문법 요소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㉔의 '이 소식'에서 '이'는 앞서 언급한 내용을 가리키는 단어이지만 그것이 문제 상황의 해결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 ② ㉔에는 미래 시점의 일임을 나타내는 표지가 없다.
- ③ ㉔에서는 의문의 형식이 나타나지만, 수사적으로 사용된 표현일 뿐이지 모르는 정보가 있음을 드러내고자 사용한 것이 아니다.
- ⑤ ㉔에서는 명사로 문장을 끝맺고 있으나, 그것이 보도 내용에서의 핵심 정보를 새로운 개념어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04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진행자는 매주 수요일 오후 여덟 시에 온라인 실시간 방송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으나 시청자에게 다음번 방송도 시청하기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이 방송은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온라인 방송이다. 진행자는 촬영과 동시에 시청자에게 방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죽을 질게 만드는 실수를 했을 때 밀가루를 더 넣는 방식으로 실수를 수습하고 방송을 이어 나갔다.
- ③ 진행자는 온라인 실시간 방송이 시청각을 중심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매체임을 고려하여 노키를 만드는 반죽의 냄새를 '구수한 감자와 고소한 치즈 냄새'와 같은 말로 묘사하며 설명하였다.
- ④ 진행자는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이 소규모의 개인 방송이라 화려하고 값비싼 재료는 못 쓰지만 소박하더라도 열심히 요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였다. 이는 가용 자원에 한계가 있기에 메뉴 선정에 제약이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진행자는 감자를 찌고 껍질을 까고 으깨는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지루해하는 시청자들이 있을까 봐 해당 작업

을 방송 전에 미리 끝내 두었다.

05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C]에서 '구름'은 빨간색과 초록색을 좋아한다는 자신의 선호를 드러냈고 진행자는 그것을 반영하여 토마토 분말과 시금치 분말을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포도'는 요리 재료로 준비된 치즈의 종류를 궁금해했고, 진행자는 치즈의 종류가 무엇인지 대답하면서 통 속에 든 치즈 가루를 보여 주었다.
- ② '새싹'은 방송의 소리가 갑자기 잘 안 들린다고 하며 자신이 느낀 불편함을 밝혔고, 진행자는 방송 장비를 조작하여 문제점을 즉각 개선하였다.
- ④ '바다'는 지금 집에 가는 길에 배가 고프다며 자신의 현재 상태를 언급했고, 진행자는 좀 더 힘을 내 보라며 '바다'에게 대답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⑤ '식빵'은 노키가 금방 떠오른다고 하며 자신이 화면으로 보고 있는 바를 그대로 표현했고, 진행자는 노키가 떠오르는 것과 관련하여, 잘 익은 노키를 구멍 난 국자로 건져야 한다는 주의 사항을 안내하였다.

06 매체

본문 144~150쪽

01 ⑤

02 ②

03 ④

04 ④

05 ⑤

01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와 (나)에 모두 '해라체'가 쓰였지만, (가)의 기사 중 '바로 잡습니다'에서는 잘못 전달한 내용을 바로잡는 기사의 특성상 상대방을 높이는 종결 어미가 쓰였고, (나)의 기사 내용에서는 인터뷰 내용을 전사한 부분에 상대방을 높이는 종결 어미가 사용되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종이 신문은 지면에서 기사와 그 내용의 위치 및 제목의 크기를 다양하게 조절하여 나타낸다. 이는 정보의 중요도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나)의 온라인 신문에서는 하나의 기사 내용만이 제시되고 있다.
- ② (가)는 배포된 기사에서 잘못된 점을 확인하더라도 즉각적으로 기사를 고칠 수 없어, 시일이 지난 후 (가)의 ‘바로잡습니다’와 같은 기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고 있다. 반면 (나)에서는 댓글의 ‘말급자식’이 기사 내 오류를 발견하여 댓글을 달자 기사가 오류를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바로잡고 있다.
- ③ (나)의 기사 후반부에서는 시각과 청각이 결합된 자료인 인터뷰 동영상상을 통해 안구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여 정보의 수용 과정을 보조하고 있다. 반면 (가)에서는 기사 내용과 관련된 이미지가 제시되어 있지만 이는 시각과 청각이 결합된 자료가 아니다.
- ④ (나)에서는 기사의 조회 수를 기준으로 본 기사의 오른쪽에 세 가지 머리기사를 배치하고 있으나, (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02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와 (나)의 기사 제목에서는 조사나 일부 서술어를 생략하고 있다. 이는 제목을 짧게 하여 정보를 압축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와 (나)의 기사 작성을 위해 참고한 자료의 목록은 기사 내용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
- ③ (가)의 ‘건강에 도움 되는 햇빛, 치료제로도 쓰여’에 ‘20분간’이라는 표현이 있고, (나)의 기사 내용에 ‘75~80%’와 같이 수치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수치를 통해 사건의 선후 관계가 파악되고 있지는 않다.
- ④ (나)의 기사 내용에서는 전문가의 인터뷰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전문가의 말을 직접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가)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 ⑤ (가)와 (나)의 기사 내용에서는 상반되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0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진행자는 여섯 번째 발화에서 드라마 제작비가 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을 예측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진행자의 발화 중 방송 주제에 대해 여러 당사자가 지닌 관점을 아울러 제시할 수 있게 질문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진행자는 세 번째 발화에서 감염병의 유행을 언급하였고, 자신이 그때 처음으로 유료 OTT를 구독했다며 직접 경험한 바를 언급하고 있다.
- ② 진행자는 두 번째 발화에서 지난 회차 방송의 내용을 언급하며 방송 주제에 포함된 용어인 ‘OTT’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 ③ 진행자의 네 번째 발화 직전에 연구원은 감염병 유행 때문에 유료 OTT 구독 서비스의 이용이 보편화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진행자는 네 번째 발화에서 감염병 유행 때문에 유료 OTT 구독 서비스가 보편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었다고 하며 유료 OTT 구독 서비스의 보편화가 콘텐츠 제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물었다. 이는 연구원이 직전에 답변한 내용 중 일부를 재진술하며 연구원이 방송 주제와 관련한 OTT 업계의 전략을 설명하도록 질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진행자의 다섯 번째 발화 직전에 연구원은 OTT 업체가 드라마를 사전 제작하는 경향은 드라마의 성패에 대한 위험 부담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이후 진행자는 다섯 번째 발화에서 웹툰이나 웹 소설 기반의 드라마가 많이 제작된다는 최근의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이는 원작의 성공에 기대서 위험 부담을 줄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는 시의성 있는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연구원이 앞선 답변에 더해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질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4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자료 ㉔에서 2023년 유명 드라마 제작비로 제시된 표는 추정치가 아니라 제작비가 공개된 몇몇 경우가 표로 정리된 것이므로 표의 내용이 추정치임을 드러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연구원의 두 번째 발화를 통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OTT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료 ㉔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OTT 서비스 이용률 추이를 그래프로 제시하고 있다.
- ② 연구원은 세 번째 발화에서 감염병 발생 이후 OTT 이용률이 가파르게 증가했다고 했고, 자료 ㉔의 그래프 안에는 감염

병 발생 시점과 확산 시점이 표시되어 있다.

③ 연구원은 다섯 번째 발화에서 한 OTT 드라마의 포스터가 웹툰 섬네일과 거의 똑같다는 점을 언급했다. 자료 ㉔의 좌측에는 웹툰 섬네일이, 우측에는 OTT 드라마의 포스터가 제시되어 있다.

⑤ ㉑~㉔ 모두 자료의 출처가 자료 내에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자료의 원제작자를 존중하고 수용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이해한 것은 적절하다.

05 매체 언어의 주체적 수용

답 ㉔

정답이 정답인 이유

‘햇살’은 드라마 제작비가 상승했다는 방송 내용에 대해 향후 구독료의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스럽다고 하였고, ‘쑥쑥’은 유료 OTT 업체에서 드라마 사전 제작이 보편화되었다는 방송 내용을 바탕으로 이러한 방식이 공영 방송 드라마 제작에도 영향을 미치면 드라마를 보는 재미가 더 커지겠다고 하였다. ‘햇살’과 ‘쑥쑥’은 모두 방송에서 다른 내용이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예측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햇살’과 ‘쑥쑥’의 댓글에서 수용자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방송 내용이 만들어졌음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② ‘햇살’은 방송을 보고 자신이 궁금해하던 것을 알게 되어 유익하다고 하였고, ‘초록’은 방송에서 제시한 OTT 이용률을 연령대별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햇살’은 방송에서 전달한 정보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초록’은 그렇지 않다.
- ③ ‘쑥쑥’은 자신이 공영 방송과 유료 OTT를 모두 재미있게 보고 있다고 하며 유료 OTT의 영향으로 공영 방송 드라마도 사전 제작이 되면 드라마 보는 재미가 더 커지겠다고 하였고, ‘초록’은 자신 주변에는 OTT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며 방송에서 제시한 OTT 이용률을 믿기 어려워하였다. ‘초록’은 방송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주변을 관찰한 바를 제시하고 있으나, ‘쑥쑥’은 그렇지 않다.
- ④ ‘초록’은 방송에서 제시한 OTT 이용률을 연령대별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이는 방송에서 제시된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생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햇살’의 댓글에서는 방송에서 제시된 정보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07 매체

본문 151~158쪽

- 01 ㉔ 02 ㉔ 03 ㉔ 04 ㉔
- 05 ㉔

01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㉔

정답이 정답인 이유

방송 도입부의 ‘진행자’ 단독 출연 장면에서 ‘진행자’는 오늘의 소개 장소가 ‘별사랑 천문대’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장면에서 촬영 장소 선정에 시청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밝히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진행자’가 ‘주변이 어둑어둑해지고 있는 것 보이시죠? 오늘은 어두워야 진가를 발휘하는 장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라고 언급한 내용을 통해, 제작진이 천문대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시간대를 선정해서 방송의 시작 장면을 촬영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천문대장’이 ‘요청하신 대로 촬영 사실을 공지했으니’라고 언급한 내용을 통해, 제작진이 촬영 사실을 공지해 달라고 천문대에 요청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진행자’가 망원경을 통해 천체를 관측하는 장면을 통해, 제작진이 촬영 장소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활동을 ‘진행자’가 체험해 보도록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진행자’가 ‘청소년’을 인터뷰하는 장면을 통해, 제작진이 촬영 장소를 방문한 시민에게 방문 소감을 들어 보는 장면을 방송 내용에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2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㉔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촬영한 인터뷰 영상 중간에 체험 활동 영상이 삽입되어 있다. 하지만 삽입된 영상은 망원경 모형 만들기 활동을 보여 주는 영상으로 인터뷰 대상이 유익하다고 밝힌 활동이 아니다. 인터뷰 대상인 청소년이 유익하다고 언급한 활동은 망원경으로 천체를 직접 관측한 활동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에서 소개 대상인 천문대의 전체적인 모습과 ‘진행자’의 모습을 하나의 장면에 담아 제시하고 있다.
- ② ㉒에서 ‘천문대장’이 발화하면서 생각한 내용을 괄호에 추가해서 화면 하단의 자막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㉔에서 천체 망원경을 촬영한 영상에 해당 망원경을 설명하고 있는 ‘천문대장’의 영상을 작게 삽입해서 제시하고 있다.
- ④ ㉔에서 ‘진행자’가 천체를 관측하고 있는 모습과 ‘진행자’가 관측 중인 천체의 모습을 화면 분할을 통해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03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방송에서 ‘천문대장’은 ‘천문 현상이 있을 때마다 관측 사진을 촬영해 누리집에 올려 드립니다. 최근에는 사분의자리 유성우 사진을 올려 드렸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사분의자리 유성우 사진이 누리집의 [갤러리]에 올라와 있으므로 3월 14일의 부분 월식 사진도 천문 현상이 발생한 이후에 [갤러리]에 등록될 것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방송에서 ‘천문대장’이 청소년 우주 특강이 포함된 프로그램은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체험 프로그램을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
- ③ 방송에서 ‘진행자’가 월별 별자리 지도를 누리집에 탑재할 것을 제안하지는 않았으며, ‘천문대장’이 월별 별자리 지도가 누리집에 탑재될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 ④ 방송에서 ‘천문대장’이 반사 망원경의 쓰임에 관해서는 설명하였지만, 굴절 망원경의 쓰임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 ⑤ 방송에서 ‘진행자’가 천문대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언급한 공간은 관측실인데, 공지 사항의 3월 게시 글에는 ‘교육실’과 ‘전시실’에 관한 정보만 게시되어 있을 뿐 관측실에 대한 정보는 게시되어 있지 않다.

04 매체 언어생활의 특징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행정팀장’은 화면 공유 기능을 활용해서 자신의 부서에서 조사한 ‘앱 이용자의 의견’을 문자 언어로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전시팀장’이 ‘행정팀장’의 마이크가 꺼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마이크 기능을 조절하여 순차적으로 발언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 ② ‘김 대표’가 회의 녹화를 요청하였으나, 이는 회의 내용을 누락 없이 앱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지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③ ‘홍보팀장’은 자신이 제안한 내용과 관련된 다른 박물관의 사례를 보여 주기 위해 해당 박물관의 누리집 주소를 공유하고 있으나, 자신이 제안한 사항을 시각 자료로 재정리해서 전송하고 있지는 않다.

⑤ ‘전시팀장’은 회의 중간에 채팅 기능을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소음으로 인한 것이지 내용이 복잡해서 음성 언어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05 정보 구성 언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홍보팀장’은 다른 박물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상설 전시 안내 메뉴에서 각 전시실로 연결되는 버튼에 각 전시실의 전체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이미지를 넣는 방안 혹은 각 전시실을 대표하는 유물 이미지를 넣는 방안을 적용해 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두 가지 방안 중에서 중간 결과물에 실제로 반영된 것은 버튼에 각 전시실을 대표하는 유물 이미지를 넣는 방안이다. 따라서 ‘홍보팀장’이 제시한 두 가지 방안이 모두 상설 전시실 연결 버튼에 구현되었다는 것은 ‘행정팀장’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중간 결과물’을 보면, ‘전시팀장’이 제안하고 ‘홍보팀장’이 보완한 개선 방안이 ‘기획 전시 안내’ 메뉴와 ‘상설 전시 안내’ 메뉴의 위치가 서로 바뀐 것을 통해 구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중간 결과물’을 보면, 회의에서 화면으로 소개된 앱 이용자의 의견 중 하나인 ‘기획 전시되는 유물에 대한 안내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뭘 눌러야 할지 실행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가 손가락 이미지와 실행 방법 안내로 구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④ ‘중간 결과물’을 보면, 관람 기회의 확대 차원에서 지난 기획 전시를 VR 체험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을 앱에 추가하자고 한 ‘행정팀장’의 의견이 ‘지난 기획 전시 보기’ 기능 추가로 구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중간 결과물’을 보면, 내용 전달력 향상 차원에서 강조할 내용의 글자 크기나 굵기에 변화를 주자고 한 ‘전시팀장’의 의견이 ‘국보 백제 금동 대향로’라는 국가유산 명칭 표기를 통해 구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08 매체 본문 159~166쪽

01 ② 02 ① 03 ④ 04 ③
05 ①

01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여행 초보자를 위한 정보가 전달되고 있지만, 정보에 대한 수용자의 이해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지는 않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시각적 정보를 함께 제공할 수 있으므로 진공 압축팩을 사용하는 방법은 시범 보이기를 통해 전달하였다.
 - ③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진행자는 출연자가 전달하려는 정보의 일부 내용을 중단시키고 다음 방송에서 전달하도록 하였다.
 - ④ 수용자가 방송에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수용자가 방송 중에 문자로 요청한 정보를 즉각적으로 제공하였다.
 - ⑤ 연속성을 갖고 일정한 주기로 제공되는 방송이므로 오늘 방송에서 제공하려는 정보와 지난주에 방송된 내용과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즉 지난주에 방송된 여권 발급과 비행기표 예매 이후에 여행 초보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을 소개하였다.

02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낫달’이 기내 반입 금지 물품으로 제시한 사례 중에서 반입이 허용되는 경우를 ‘초록’이 제시함으로써 ‘낫달’이 제공한 불완전한 정보가 보충되고 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낫달’이 언급한 내용은 방송 내용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 ③ ‘별콩’은 방송을 듣고 느낀 아쉬움을 말했으나, ‘낫달’이 이에 동조하거나 공감한 것은 아니다.
 - ④ ‘낫달’과 ‘초록’이 방송 내용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나타내지도 않았으며 이것이 ‘별콩’에 의해 절충되지도 않았다.
 - ⑤ ‘초록’이 개인적인 경험을 언급하였으나 이것을 통해 ‘낫달’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인 것은 아니다.

03 매체 자료의 정보 구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정보의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을 알려 주기로 한 계획에 따라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누리집의 주소가 안내되어 있다. 그러나 ‘여행 □□’의 누리집은 여행가가 방송에서 언급한 것이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방송 내용과 관련된 제목을 넣기로 한 점을 고려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이름을 활용해 만든 ‘달콤한 여행을 위한 해외여행 꿀 정보’를 제목으로 제시하였다.
 - ②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여, 방송에서 다른 주요 소재인 여행 가방과 환전을 표현한 그림 자료를 넣어 주었다.
 - ③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필요한 관련 정보를 추가하기로 한 점을 고려하여, 여행가가 언급한 방법 이외에 먹거리의 부피를 줄여 담는 정보를 추가하였다.
 - ⑤ ‘세 번째 슬라이드’에는 슬라이드의 제목이 포괄하는 방송 내용만 넣기로 한 점을 고려하여, ‘알뜰한 환전 요령’이라는 제목의 범위를 벗어난 신용 카드 관련 내용은 생략하였다.

04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메뉴 구성’에서는 ‘스마트 과학 실험실’을 구성하고 있는 메뉴가 그래픽을 활용한 화면을 통해 안내되어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수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메뉴를 단계별로 안내한 것은 아니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스마트 과학 실험실’에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컴퓨터, 태블릿, 휴대 전화 등)의 종류가 시각 이미지의 형태로 전달되었다.
 - ② ‘회원 가입 및 로그인’에서 ‘교수 학습 자료’는 교사 회원만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고 교사는 교육 행정 전자 서명을 통해 추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안내하였다.
 - ④ ‘스마트 실험실 메뉴의 세부 프로그램’에서 하이퍼링크를 통해 가상 실험과 원격 실험의 세부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⑤ ‘기타 안내’에서 앱 설치를 할 수 있는 웹사이트의 주소와 QR 코드를 함께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05 매체의 언어적 특성과 파급력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유진’은 ‘창윤’의 질문을 받고 (가)에서 필요한 정보만 선별하여 (나)에서 공유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사용자가 (나)에서 교환한 정보와 무관하게, 사용자에게는 (가)의 정보를 재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 ③ 사용자가 (나)에서 정보를 요청받은 것과 무관하게, 사용자에게는 (가)의 정보를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 ④ 사용자가 (가)에서 교류한 정보 이력을 (나)에서 불러와 확인할 수는 없다.
- ⑤ (가)의 정보 검색 권한은 (나)에서 다른 사용자와 교환한 정보를 활용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회원 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다.

09 매체

본문 167~173쪽

- 01 ③
 - 02 ⑤
 - 03 ③
 - 04 ③
- 05 ④

01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㉞은 기자의 발화 중 일부 내용을 요약해서 제시하였을 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여 내용을 구체화하지는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㉞은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달리하여 마스크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문제 상황을 부각하였다.
- ② ㉞은 기자가 보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의문문 형식으로 제시하여 시청자의 관심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 ④ ㉞은 개발자의 발화에서 생략된 ‘부정적’과 ‘것입니다.’를 자막에 포함하여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였다.
- ⑤ ㉞은 갑자기 발생한 지진의 상황을 속보로 전달하여 이에 대한 시청자의 주의를 유도하였다. 이것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텔레비전 뉴스의 매체적 특성을 잘 보여 준다.

02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학생 5’는 보도에서 새 활용 제품의 상용화를 환경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이것을 위해 시청자가 동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환경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학생 5’가 주목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학생 1’은 다 쓴 마스크의 처리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시점에 페마스크가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는 점을 보도한 것에 대해 시의적으로 적절한 보도였다고 평가하였다.
- ② ‘학생 2’는 마스크가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과 이 보도를 통해 사람들이 다 쓴 마스크도 함부로 버리면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도 내용의 효용성 측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 ③ ‘학생 3’은 페마스크의 배출량과 관련된 통계 자료의 출처가 구체적이지 않고 조사 시점이 제시되지 않은 점에 주목해 보도의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 ④ ‘학생 4’는 보도에 소개된 새 활용 제품 전시회의 세부 정보, 즉 전시회가 열린 시기와 장소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지 않은 점에 주목해 보도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0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에는 마스크 새 활용의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대구적 표현을 활용한 표어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가)에서 언급된 새 활용의 활성화 방안을 안내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새 활용 제품의 구매 희망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나)에서는 이러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새 활용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의 전화번호를 제시하였다.
- ② (가)에서 버려진 마스크로 의자, 화분, 안경테 등 여러 새 활용 제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였는데, (나)에서는 이 내용을 화살표를 활용한 이미지로 보여 주었다.
- ④ (가)에서 새 활용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나)에서는 새 활용을 응원하는 동아리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스크의 새로운 탄생을 응원합니다”라는 문구를 인용 부호와 함께 제시하였다.
- ⑤ (가)에서 새 활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나)

에서는 이를 위해 제작한 포스터의 생산 주체인 ‘셋별 고등학교 환경 동아리’를 포스터의 하단에 명시하였다.

04 수용자 특성을 고려한 매체 언어의 표현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진행자는 자신이 보여 주는 시범 장면을 수용자가 다른 각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카메라의 위치를 옮겨 여러 각도의 화면을 제시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시간 제약이 있는 수용자를 고려하여 핵심 내용만 요약한 편집 방송의 시청을 유도하는 내용은 방송에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방송 도중에 접속한 수용자를 고려하여 앞부분에 제공된 정보를 중간 부분에 다시 제공하지는 않았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하지 못한 수용자는 나중에 다시 보기를 통해 방송을 처음부터 다시 볼 수 있다.
- ④ 사전에 녹화해 놓은 편집 영상을 중간에 삽입하여 활용하지는 않았다.
- ⑤ 방송 중에 제공되는 음성 언어를 문자 언어로 풀어서 제시한 것은 확인할 수 없다.

05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꽃향기’는 방송을 통해 자신이 얻게 된 효용을 제시함으로써 진행자가 방송에 대한 보람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꽃향기’가 방송을 들으면서 진행자의 정서에 점차 공감하게 되었음을 밝힌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꽃꼬미’는 [A]에서 진행자가 ‘화초 분갈이’에 대해 알려 주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진행자는 화초 분갈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화초 분갈이’를 화제로 선정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 ② ‘식물사랑’은 [B]에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진행자에게 화분에서 화초 빼내는 것을 다시 보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진행자는 화분에서 화초를 빼내는 시범 동작을 반복하였다.
- ③ ‘잎이랑’은 [C]에서 방송을 들으며 생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분갈이를 할 때 꼭 배양토를 사다 써야 하는지 말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진행자는 배양토를 쓰지 않았을 때 우려되는 점을 말하고 배양토를 쓸 것을 권장하였다.

⑤ ‘식물쑥쑥’은 [E]에서 화초 분갈이를 한 후에는 한 3~4일 정도 그늘진 곳에 놓아두어야 한다는 정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진행자가 관련 정보를 즉각적으로 추가하도록 하였다.

10 매체

본문 174~180쪽

- 01 ⑤
- 02 ①
- 03 ③
- 04 ①
- 05 ⑤

01 매체 언어의 의사소통 방식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학생회장이 방송에서 제시한 자료 화면은 학교 영상과 투어 지도이다. 학생회장은 화면을 제시하여 학교 곳곳 스탬프 투어 행사를 소개한 것이지, 매체 수용자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었음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진행자의 ‘안녕하세요, △△고 학생 여러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진행자의 ‘현재 접속자 수가 215명으로, 지난번 방송보다 50여 명 정도 더 입장하셨네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진행자의 ‘대화창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의견들이 학생회를 응원하고 칭찬하는 것 같네요. 미래 님, 학생회장님에 대한 응원과 관심 감사드려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학생회장의 ‘그래서 지난주에는 ‘등곳길 음악회’로 우리 △△고의 시작을 축하하고 응원해 보았고요, 이번 주에는 ‘학교 곳곳 스탬프 투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미래’는 ‘회장님 뛰어오셨나 봐요. 얼굴이 빨강네요 ㅎㅎ. 건강해 보여요. 파이팅!’이라고 학생회장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우호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는 등곳길 음악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며 우호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새빛’은 ‘저는 신입생인데요, 학교의 사계절이 참 아름다

워 보여요.’라고 말하며 영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영상에 소개된 공간을 직접 가 보겠다는 계획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언니’는 ‘앗, 저런 곳도 있었네요. 난 아직 못 가 봤는데, 하교하면서 둘러 봐야겠어요.’라고 영상에 소개된 공간을 직접 가 보겠다는 계획을 언급하며 영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③ ‘책보자’는 ‘우리 도서관 영상도 있네요. 그런데 서가 모습은 안 보이네요. 서가를 꼭 보셔야 하는데, 제가 서가 영상 파일을 학생회에 전달해 드릴까요?’라고 영상에서 빠진 부분을 언급하며 자료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철저한 계획과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④ ‘궁금’은 장소들을 방문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를 단순히 묻고 있는 것으로, 영상 자료에 대한 추후 수정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자료에 틀린 정보가 있음을 비판하지도 않았다.

⑤ ‘상타자’는 ‘궁금’의 질문에 대해 실시간 방송에 올라온 자료를 바탕으로 추측하면서 답변하고 있다. 학생회에서 설명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답변한 것은 아니다.

0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투어 지도에 공간의 이름만 나온 점을 지적하며 간단한 설명이 있으면 더 좋을 것이라는 제안은 (나)를 쓴 ‘나반장’이 아니라 ‘김세세’라는 학생이 한 것으로, 스탬프 투어에 대한 댓글에서 언급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투어 지도가 있는 방송 캡처 화면을 보여 주면서, 누락된 공간이 있는 것에 대해 궁금해하며 묻고 있다.

② ‘학교생활을 하면서 자주 방문하게 되는 공간이 투어 장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혹시 투어 장소 선정에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일까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실시간 대화에서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한 학생회의 답변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좀 아쉽네요. 그래도 신입생만이 아닌, 재학생까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점은 좋아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혹시 오늘 방송을 못 보신 분들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학교 곳곳 스탬프 투어 행사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에서 하이퍼링크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 곳곳 스탬프 투어와 관련하여, 댓글로 함께 의견을 나눠요.’에서 댓글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04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는 AR 기술을 이용한 투어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앱의 이용자들은 현실에 가상의 대상을 덧입혀 전시 유물을 더욱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2>의 화면은 <가-1>의 메뉴 창을 활성화하여 나온 것으로, AR 투어, 상설 전시, 공지 사항, 예약하기, 스탬프 등의 메뉴들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다른 박물관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메뉴는 없다.

③ <가-2>에서 ‘유물 자동 음성 안내’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기능은 전시 유물에 대해 자동으로 음성 안내를 해 주는 것이지, 전시 공간을 찾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것은 아니다.

④ (나)에는 투표하는 기능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후기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 내용도 없다.

⑤ (나)에서 사용자의 후기에 박물관 관계자의 답변이 나오기는 하지만, 사용자가 궁금한 점을 묻고 박물관 관계자가 이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05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돌도끼’는 상설 전시의 풍부한 내용, AR 길 찾기의 재미와 유용성 등에 대해 언급하며 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가-1>에는 상설 전시 유물 목록이 나타나지 않으며, ‘돌도끼’가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저고리’는 <가-3>의 전시 유물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문자, 음성 언어, 수어 영상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② ‘흥미진진’은 <가-1>과 <가-2>의 AR 길 찾거나 AR 투어, <가-2>의 스탬프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③ ‘역사공부’는 <가-3>과 관련하여 유물에 대한 설명이 줄 바꿈이 없어서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중요 부분은 서체를 바꾸어 강조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서체의 변화가 없어서 역시 가독성이 떨어짐을 제시한 것이다.

④ ‘돌확’은 <가-2>의 언어 변경 기능, <가-3>의 공유하기 기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11 매체

본문 181~188쪽

- 01 ④
- 02 ③
- 03 ④
- 04 ③
- 05 ④

01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에서 언급한 지역어 사용자의 감소 및 지역어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나)에서 ‘민우’는 지역어 사용과 관련된 인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는 지역어 사용자에게 친근하고 편안함을 느낀다는 설문 분석 결과를 긍정적 측면으로 제시하자고 한 것이다. 지역어 사용자 감소와 관련하여 매체의 발달로 인해 표준어만 강조한 결과라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수미’의 세 번째 발화에 2010년 이후 국어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에 대한 언급이 나타난다.
- ② ‘희진’의 네 번째 발화에 사회적 소통 도구로서의 언어 능력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수준 제고와 관련된 언급이 나타난다.
- ③ ‘수미’의 네 번째 발화에 욕설과 비속어의 습관적 사용 수치가 21.9%p나 높아졌음을 제시하지는 언급이 나타난다.
- ⑤ 정우의 네 번째 발화에 모든 세대의 70% 이상이 지역어 사용자에게 친근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인상적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언어적 다양성과 지역 문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높은 인식 수준을 알 수 있다는 언급이 나타난다.

02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수미는 세 번째 발화에서 화상 회의의 화제에 대해 언급한 후, 조사 결과 통계 자료를 시각화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현재의 화상 회의를 나중에 참고할 수 있게 녹화 기능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전 회의 자료를 공유하고 있지는 않다.
- ② 동영상 파일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 ④ 원활한 화상 회의를 위해 말할 때 마이크를 켜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영상을 통해 참여자들의 참석 여부와 음성 언어 전달 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는 않다.
- ⑤ 채팅 창은 녹화, 화면 공유 등 화상 회의의 진행 상황을 제시하거나 회의 참여자들의 반응을 보여 주고 있을 뿐 음성 언

어 사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채팅 창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03 매체 자료의 정보 구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의 화상 회의에서 글자의 크기나 굵기에 변화를 주는 방법을 활용하여 슬라이드를 만들자는 의견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희진’의 발화에서 ‘발표의 처음-중간-끝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 먼저 얘기하는 게 어떨까?’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은경’의 발화에 발표 처음에는 욕설이나 비속어로 인해 불편했었던 상황, 중간에는 보도 자료를 통해 알게 된 언어 습관이나 인식, 끝에는 실천 방안을 제시하지는 언급이 나타나 있다.
- ② ‘슬라이드 1’에서는 시각 자료와 ‘난 아픈데, 넌 안 아프니?’라는 문장을 통해 욕설이나 비속어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나)의 대화에 나타난, 일상 대화 중 자주 사용하는 욕설이나 비속어로 인해 마음이 불편했던 상황을 언급하면서 발표를 시작하지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정우’의 발화에서 ‘언어 의식 조사 결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은경’의 발화에서 ‘그럼 발표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는 먼저 애니메이션과 함께 ‘욕설과 비속어의 습관적 사용, 이제 그만!’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친구들의 관심을 유도하자.’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04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는 블로그에 게시된 글로, 독립 서점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독립 서점의 증가 추세, 독립 서점의 특징, 독립 서점의 의의를 순서대로 구성하였다. (나)는 우리 동네 독립 서점 지도, 독립 서점의 특징, 대형 서점과 독립 서점 비교, 독립 서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독립 서점의 의의 순서로 카드를 구성하고 있다. (가), (나) 모두 전체에서 부분으로의 공간 변화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는 2023 전국 독립 서점 수를 하이퍼링크 기능을 활용하여 안내하고 있다.

② (나)는 ‘카드 5’에 다른 카드들과 달리 효과음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독립 서점이 서점을 체험하는 공간이라는 가치를 부각하고 있다.

④ (가), (나) 모두 독립 서점의 모습을 보여 주는 시각 자료를 첨부하고 있다.

⑤ (가), (나) 모두 글자의 굵기나 크기, 글자체 등에 변화를 주어 강조하는 내용을 부각하고 있다.

05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카드 2’에서 독립 서점의 특징을 열거하거나 ‘카드 4’에서 독립 서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지만, 독립 서점의 다양한 의미를 항목화하거나 개인적 측면 및 사회적 측면으로 범주화한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카드 1’에서 10년 전만 해도 하나도 없었던 우리 동네의 독립 서점이 제법 많아진 상황을 우리 동네 독립 서점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제시하여 보여 주고 있다.

② ‘카드 2’에서 독립 서점의 특성을 ‘곳’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어구를 열거하면서 제시하고 있다.

③ (가)의 내용을 보완하여 대형 서점의 특징을 추가한 후, 대형 서점과 독립 서점을 대조한 내용을 ‘카드 3’에 제시하고 있다.

⑤ (가)의 마지막에서 제시한 독립 서점의 가치를 부각하기 위해 ‘카드 1’에서 질문을 통해 궁금증을 유발한 후, ‘카드 5’에서 이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링크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제작자에 대한 정보를 하이퍼 링크 기능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가)에서는 ‘#닷내림효과’, ‘#앵커링효과’, ‘#정박효과’처럼 제재와 관련된 단어를 검색어로 제시하고 있으나, (나)에서는 검색어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가)에서는 순서를 나타내는 표지와 함께 소제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나)에서는 소제목을 순서를 나타내는 표지 없이 제시하고 있다.

⑤ (가)에서는 별도의 주석을 달고 있지 않으며, (나)에서는 주석을 달고 있으나 이를 통해 정보 제공자의 주관적 견해가 아닌 객관적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02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카드 5’에서는 닷 내림 효과의 분야별 활용과 관련해 [C]에서 언급하지 않은 사례를 표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카드 1’에서는 [A]에서 언급한 닷 내림 효과의 개념을 발췌하여 제시하고 있다.

② ‘카드 2’에서는 [B]의 1문단에서 언급한 실험 내용을 집단 1과 집단 2를 비교하는 표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③ ‘카드 3’에서는 [B]의 2문단에서 실험 결과를 분석한 내용을 화살표를 비롯한 도식을 활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④ ‘카드 4’에서는 [A]에서 언급한 닷 내림 효과의 사례를 삽화로 구성하여 설명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03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구독자 2’는 카드 뉴스의 내용을 첫인상에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작자는 첫인상에 관한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인 초두 효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초두 효과’는 (가)의 ‘카드 6’에서 소개한 정보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구독자 1’은 카드 뉴스를 공유해도 되는지 묻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제작자는 (가)의 ‘카드 6’에서 언급한 대로 카드 뉴스 공유 시 출처를 밝혀 달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③ ‘구독자 3’은 닷 내림 효과와 관련된 정보의 출처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제작자는 (가)의 ‘카드 6’에서 언급한 정보의 출처를 제시하고 있다.

④ ‘구독자 4’는 비공개로 제작자와 소통하기를 원하는데, 이

12 매체 본문 189~194쪽

01 ② 02 ⑤ 03 ② 04 ③

05 ②

01 매체 자료의 정보 구성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나)는 문자 텍스트로 이루어진 단일 양식을 활용하고 있지만, (가)는 문자 텍스트와 이미지를 결합한 복합 양식을 활용하여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초두 효과’ 카드 뉴스로 이동할 수 있는 하이퍼

에 대해 제작자는 (가)에 제시하지 않은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안내하고 있다.

⑤ ‘구독자 5’는 (가)의 ‘카드 4’에 삽입된 삽화의 글씨 크기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제작자는 ‘카드 4’ 외에 ‘카드 1’의 삽화도 점검하였음을 안내하고 있다.

04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최신순 정렬’과 ‘인기순 정렬’에 따라 글을 정렬할 수 있으며, 글 목록 상단에 노출된 글이 가장 최근에 작성한 글이 아니므로 인기순에 따라 정렬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0대를 위한’이라는 문구를 통해 블로그 게시글의 예상 독자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게시판에 담긴 정보의 성격에 따라 ‘시사 상식, 진학 정보, 여행 정보’로 게시판 명칭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④ 블로그 방문자 수에 ‘오늘’과 ‘누적’을 구분하여 방문 인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좋아요’, ‘별로예요’에 표시된 숫자를 통해 게시된 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05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에 대한 정보는 글에서 제시된 정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스마트폰 사용 태도를 반성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 다르게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자 비율이 높다는 사실에 놀랐음을 언급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글에서 제시한 스몸비족의 개념을 언급하며, 스몸비라는 용어가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라는 정보를 추가하고 있다.
- ③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시야 폭과 전방 주시율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사용의 문제를 보행 상황이 아닌 운전 상황에도 적용하고 있다.
- ④ 글에 제시된 정보가 아닌,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이 거북 목 증후군을 유발한다는 기사의 정보를 언급하며 건강상의 부작용을 안내하고 있다.
- ⑤ 글에서는 스몸비족에 대한 대책으로 벌금 부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며 시민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동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01 통합

본문 195~199쪽

- 01 ⑤ 02 ① 03 ① 04 ③

01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장면 5]를 보면, 복잡한 정보화 사회를 보여 주기 위해 정보를 바쁘게 처리하는 컴퓨터 화면을 영상으로 제시하였으나, 고전을 읽을 겨를이 없이 바쁜 현대 사회를 드러내기 위해 현대인들의 일상을 영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장면 1]을 보면, ‘(화면에 촬영 스튜디오가 배경으로 보이며, ‘텔레비전으로 만나는 도서관’이라는 프로그램명이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나타난다. 배경 음악이 흐른다.)’와 같이 화면을 연출하면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다.
- ② [장면 2]를 보면, ‘(작가의 이름이 화면 하단에 자막으로 나타난다.)’와 같이 화면을 연출하면서 작가를 소개하고 있다.
- ③ [장면 3]을 보면, ‘(○○ 도서상을 수상하는 장면과 함께 책의 표지가 영상으로 나타난다.)’와 같이 화면을 연출하면서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있다.
- ④ [장면 4]를 보면, ‘(「일야구도하기」와 관련된 책의 내용이 영상으로 나타난다.)’와 같이 화면을 연출하면서 책 속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02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시청자 1’은 방송 내용이 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방송 내용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시청자 2’는 이 책에 「일야구도하기」 이외에 어떤 고전 작품이 소개되어 있는지 책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궁금해하고 있다.
- ③ ‘시청자 3’은 동일한 작가의 다른 작품을 읽었던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 ④ ‘시청자 4’는 동영상을 이용하는 것이 책을 읽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언급하면서 방송 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⑤ ‘시청자 5’는 박지원의 작품 이외의 다른 고전 작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03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에서 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진행자가 아니라 작가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는 (나)와 달리 진행자가 작가에게 ‘이러한 연암의 작품이 현대인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와 같이 책에 수록된 작품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③ (나)는 (가)와 달리 화면을 통해 ‘<오늘 방송 순서>’와 같이 방송의 순서를 제시하고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진행자가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별써 반응이 뜨겁네요.’ 등과 같이 시청자의 반응을 확인하며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다.

⑤ (나)는 (가)와 달리 ‘오늘은 시청자 퀴즈도 준비했는데요, 퀴즈를 맞힌 분께는 상품도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와 같이 시청자들이 방송 시청을 지속하도록 하는 유인책을 제공하고 있다.

04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에 어미 ‘-겠-’이 쓰였으나, 이는 현대인들도 연암의 작품이 주는 메시지에 공감할 것이라는 추측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이야구도하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 ‘살아 있습니다’에 쓰인 보조 용언 ‘있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변화가 끝난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말’로, 세월이 흘러도 고전에 담긴 지혜의 유효함이 지속됨을 표현하고 있다.

② ㉠의 ‘하지만’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상반되는 사실을 나타내는 두 문장을 이어 줄 때 쓰는 접속 부사’로, 삶의 외적인 여건에 대한 앞 문장의 내용과 뒤에 이어지는 문장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의 ‘무슨 소리가 들리겠습니까?’에 쓰인 ‘-습니까’는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은 형태는 의문문이지만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강한 부정 진술을 내포하고 있는 수사 의문문이다. ‘들리겠습니까?’는 거센 물결의 소용돌이를 직접 볼 때 물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고 있다.

⑤ ㉠의 ‘...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에 쓰인 ‘고’는 ‘앞말이 간접 인용되는 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 ‘이 이야기(「이야구도하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다.

02 통합

본문 200~203쪽

01 ②

02 ④

03 ②

04 ③

01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진행자는 칸딘스키의 미술을 접했던 일상의 경험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진행자는 기자에게 ‘먼저 칸딘스키가 그림을 공부하게 된 계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칸딘스키는 어떤 화가인가요?’, ‘다음으로 칸딘스키 미술의 특징이 잘 드러난 작품을 볼 수 있을까요?’ 등과 같이 칸딘스키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을 하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③ 기자는 ‘칸딘스키는 추상 표현주의의 창시자라고도 불리는데요, 추상 표현주의란 ... 미술 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와 같이 특정 미술 사조의 개념을 밝혀 칸딘스키 미술이 지닌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④ 기자는 ‘칸딘스키는 작품에서 알아볼 수 있는 사실적 형태를 완전히 버리고 추상 미술을 추구한 화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작품은 「구성 7」이라는 작품인데요,’ 등과 같이 진행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칸딘스키의 미술 경향과 대표작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⑤ 기자는 ‘그는 뮌헨에 있을 당시 쇤베르크의 연주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아 ... 그리고 칸딘스키가 쇤베르크의 음악을 듣고 느낀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도 있습니다.’와 같이 칸딘스키와 쇤베르크의 일화를 제시하여 칸딘스키가 음악에도 관심이 많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02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진행자가 쇤베르크의 음악을 듣고 그린 칸딘스키의 작품에 대

한 소개를 부탁하고 있으나, 기자가 ㉔의 자막과 같이 질문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㉔은 방송의 첫 장면으로, 시청자에게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를 안내하기 위해 방송의 주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㉔은 칸딘스키에게 영감을 준 모네의 「진초 더미」를 보여주기 위해 작품을 화면에 제시하고 있다.
- ③ ㉔은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칸딘스키가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었나?」와 같이 진행자의 발화 내용 일부를 자막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㉔은 음악과 관련된 칸딘스키의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인상 3」이라는 작품을 화면에 제시하고 있다.

03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는 칸딘스키의 미술과 작품의 특징에 대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나)는 칸딘스키 전시회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는 (가)와 달리 칸딘스키 전시회의 일정을 소개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칸딘스키의 대표 작품을 시청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칸딘스키의 전시회를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칸딘스키의 작품 중,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개인 소장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04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㉖에서는 「한꺼번에 많이」를 의미하는 부사 「대거」를 사용하여, 이번 전시회에서 미공개 수집품이 공개되는 규모가 상당히 큼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㉔의 「15곳의 소장처에서」에 격 조사 「에서」가 쓰였으나, 이는 단체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앞말이 어떤 일의 출처임을 나타낸다.

② ㉔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에 피동 접사 「-되다」가 쓰였으나, 피동 표현이 쓰임으로써 오히려 작품을 공개하지 않았던 주체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④ ㉔의 「대표 작품은 물론 그동안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희귀한 개인 소장품까지」에 보조사 「까지」가 쓰였으나, 이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된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 작품은 물론 그동안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희귀한 개인 소장품까지 전시」된다는 것은 「그동안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희귀한 개인 소장품」에 한정하여 전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대표 작품과 「그동안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희귀한 개인 소장품」을 함께 전시한다는 의미이다.

⑤ ㉔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에 종결 어미 「-습니다」가 쓰였으나, 이는 희귀한 소장품을 공개한 개인 소장자를 공손하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접하는 일반 수용자를 높이는 것이다.

03 통합

본문 204~208쪽

01 ②

02 ⑤

03 ⑤

04 ④

01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방송을 중간부터 청취한 수용자를 의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앞부분의 정보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부분도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진행자의 첫 번째 발화에서, 해당 방송이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연속 방송의 일부이며 지난주부터 시작된 특집 방송의 일환으로 지난주 방송에 이어 이번 주에도 유사한 주제를 다룰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진행자는 세 번째 발화에서, 실시간 댓글의 내용을 언급하며 연구원에게 특정 내용을 먼저 언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 ④ 진행자는 마지막 발화에서, 1부에서 다룰 것으로 예정되었던 내용을 모두 전달하지 못했음을 밝히고 이를 2부에서 이어 방송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 ⑤ 진행자는 마지막 발화에서, 라디오로만 듣는 수용자를 위해 연구원의 자료를 방송 게시판에 올려 두었음을 안내하고 있다.

02 매체 언어와 개인적·사회적 소통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여름열음’이 방송 내용에 대해 놀라움을 표현한 데 이어 ‘굴립’은 ‘삼촌’의 말과 방송 내용을 관련지어 ‘충격’이 크다고 표현하였고, ‘향아’ 역시 방송의 내용이 ‘충격’이었다고 하여 ‘여름열음’과 ‘굴립’의 반응과 유사한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여름열음’은 지난주와 이번 주 방송 내용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하였을 뿐 방송 내용을 잘못 이해하지 않았다. ‘굴립’ 역시 방송 내용을 듣고 ‘충격’이 크다고 표현하였을 뿐 ‘여름열음’의 말을 수정하지 않았다.

② ‘굴립’은 방송 내용을 듣고 이를 자신의 경험과 관련짓고 있을 뿐, 문제 상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여름열음’은 방송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내용이 ‘개복치’와 ‘향아’의 댓글에서 구체화되고 있지도 않다.

④ ‘굴립’과 ‘개복치’가 방송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이들의 반응은 절충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며, ‘향아’의 반응 역시 절충과는 거리가 멀다.

03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방송에서는 과일뿐 아니라 인삼, 배추와 같은 다른 농산물의 주산지 변화에 대해서도 다루었으며, 슬라이드에도 이들 농산물의 주산지 변화가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과일 주산지의 변화>’라는 슬라이드의 현재 제목이 방송 내용을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지도를 중심으로 농산물 품목인 과일, 인삼 등을 문자와 함께 그림으로 표시하여 시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슬라이드의 내용을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연구원이 언급한 농산물 품목 외에도 복숭아, 단감과 같은 과일의 주산지 변화에 대한 정보가 지도에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농산물 주산지의 변화가 화살표를 통해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연구원이 말한 주요 내용은 농산물 품목의 주산지 변화 및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이며, 지도는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4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에 쓰인 ‘말씀’은 ‘자기의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로, 주체나 어떤 대상을 높이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방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이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㉔의 ‘시작합니다’에는 하십시오체의 종결 어미 ‘-습니다’가 쓰였다. 하십시오체는 상대방을 아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다. 따라서 진행자가 불특정 다수의 수용자를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㉖의 ‘이용하실’에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쓰였는데, 이는 댓글을 이용하는 주체인 ‘보이는 라디오 시청자’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③ ㉔의 ‘모시고’에는 특수 어휘 ‘모시다’가 쓰였는데, 이는 객체인 ‘김△△ 연구사’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⑤ ㉔의 ‘좋아하시나요?’에는 보조사 ‘요’가 쓰였는데, 이는 청자인 ‘진행자’에게 존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04 통합

본문 209~213쪽

01 ③

02 ②

03 ⑤

04 ③

01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에서 기자의 다른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자가 작성한 다른 기사를 보고 싶다면 아래의 기사를 클릭해 주세요!’라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기자가 작성한 다른 기사 중에 병풍산의 라면 국물 문제와 같은 화제를 다루고 있는 기사는 없으므로 수용자가 해당 안내를 통해 기자의 내용과 같은 화제를 다루고 있는 생산자의 또 다른 자료를 수용할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는 기자의 수정 시간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기사가 최초 입력된 이후에 1회 이상의 수정을 거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용자는 해당 정보를 보고 기자의 내용 중에 수정되어 다시 게시된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② (가)에 감정을 나타내는 이모티콘과 댓글 기능이 있는 것을 볼 때, 수용자가 후속 기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생산자에게 전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에 본문의 내용을 읽어 주는 기능이 있음을 볼 때, 수용자가 라면 국물과 관련된 기사의 내용을 문자 언어뿐만 아니라 음성 언어로도 수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에서 기사의 범주를 다섯 개로 구분하고 있으며, 현재의 기사를 '사회' 분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수용자가 기사의 내용에 사회 분야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정보를 수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02 정보 전달과 설득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의 1문단에서 '등산객들 사이에서 병풍산 정상에서 컵라면을 먹고 인증 사진을 찍어 누리 소통망(SNS)에 올리는 행동이 유행하고 있다.'라고 문제 상황의 원인이 되는 사회 현상을 소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지만, 유사한 문제 상황을 해결했던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가)에서 라면 국물을 산에 함부로 버리는 행위가 불법 행위임을 제시하고 있지만, 해당 행위를 하면 받게 되는 처벌을 알려 주고 있지는 않다.

④ (가)에서 활용한 이미지는 누리 소통망의 병풍산 컵라면 인증 사진으로 기사의 도입부에서 밝히고 있는 등산객들 사이에서 유행 중인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이미지가 라면 국물로 인한 병풍산의 환경 오염 실태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⑤ (가)에서 최근에 병풍산 정상 부근에서 하루 평균 수거되고 있는 라면 국물의 양을 수치로 제시하고 있지만, 병풍산에서 발생하는 라면 국물이 예전에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 수치 자료로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03 매체 자료의 주체적 수용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보기>에서 '학생 3'은 (나)의 '카드 3'이 라면 국물과 쌀뜨물의 비교를 통해 라면 국물로 인한 수질 오염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가)에서 추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힌 문제는 '카드 3'에서 다루고 있는 수질 오염 문제가 아니라 라면 국물 처리로 인해 관리 사무소에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학생 3'이 '카드 3'을 보고, 기사에서 추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힌 문제의 심각성을 라면 국물과 쌀뜨물의 비교를 통해 보여 준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학생 1'은 '카드 1'을 보고, 기사의 제목을 변용한 문구와 병풍산을 의인화해서 표정을 그려 놓은 이미지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정보가 '더 다채롭게 전달'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② '학생 1'은 '카드 4'를 보고, '등산객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요령은 카드 뉴스처럼 컵라면을 만들고, 먹고, 치우는 순서로 제시하는 게 기사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라며 기사에서 관리 사무소 관계자의 말을 통해 제시한 행동 요령을 컵라면을 먹는 사람의 행동 순서에 따라 조정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③ '학생 2'는 '카드 2'를 보고, '희귀 식물이라고만 지칭할 때보다 병풍산에 밀착된 환경 문제라는 인식이 더 커지는 것 같아.'라며 병풍산을 대표하는 식물인 '개병풍'의 명칭을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④ '학생 3'은 '카드 2'를 보고, '문제 상황을 좀 더 다양하게 제시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네.'라며 별도로 조사한 동물 피해 상황을 추가해서 정보를 풍부하게 전달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04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쌀뜨물과 비교하면'에 쓰인 어미 '-면'은 어떤 사실을 가정하여 조건으로 삼을 때 쓰는 것으로, '라면 국물'을 맡게 희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의문형 종결 어미 '-르까'를 활용하여, '라면 국물로 인한 병풍산의 오염'이라는 해당 카드 뉴스의 화제를 드러내는 제목을 의문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② ㉡은 피동 표현 '-어지다'를 활용하여, 라면 국물을 버린 주체를 밝히는 대신 '라면 국물' 자체에 초점을 두어 서술하고 있다.

④ ㉢은 명령형 종결 어미 '-십시오'를 활용하여, '병풍산 지

김이'가 되어 줄 것을 해당 카드 뉴스의 독자에게 정중히 요구하고 있다.

⑤ ㉔은 명사형 어미 '-기'를 사용하여, 라면을 먹는 등산객들이 지켜야 할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05 통합

본문 214~217쪽

- 01 ① 02 ⑤ 03 ③ 04 ④

01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공유 물품 기증 방법에 대한 안내는 '공유 물품 대여'가 아닌 '학생회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점심시간 특별실 사용'은 예약 현황을 확인하여 정원보다 예약 인원이 적을 경우 '예약 신청' 버튼을 통해 이용자가 직접 예약을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③ '학생회 건의 사항'과 '자유 게시판' 모두 '글쓰기' 버튼이 있어 이용자가 직접 글을 쓸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④ 하이퍼링크 기능을 이용하여 '앱 이용 건의 게시판'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 ⑤ '학생회 공지 사항'과 '학생회 건의 사항', '자유 게시판'은 '전체 보기' 버튼이 있어 해당 게시판의 전체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02 매체 언어와 개인적·사회적 소통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송□□'은 수정 이력이 기록되도록 하면 될 것 같다는 '박△△'의 의견에 대해,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상대의 의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학생회 앱 개발 팀'은 '최○○'의 게시 글에 댓글을 달아 건의 사안의 수용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② '최○○'은 자신의 요청을 수용하지 못한 '학생회 앱 개발 팀'의 댓글 내용에 대해 재차 방안 모색을 요청하고 있지만,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해결 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는 않다.

③ '김◇◇'은 공유 물품 현황 표시 방법에 대한 '최○○'의 요청에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지 '최○○'의 제안을 반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박△△'은 '김◇◇'의 글에 댓글을 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회 앱 개발 팀'의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달고 있으며 제안이 실현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우려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03 매체 자료의 주제적 수용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후기에서는 작성자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자유 게시판'의 글쓴이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게시판 기능을 수정하는 것은 (가)의 보안을 위한 결정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학생회 앱 개발 팀에서 '학생회 공지 사항'에 이용자가 알림을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하였다.
- ② 학생회 앱 개발 팀에서 '학생회 건의 사항'에는 건의 사항이 수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③ 특별실에 예약을 해 놓고 오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회 앱 개발 팀에서는 특별실을 당일에만 예약할 수 있게 한 기능은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답변하였다.
- ④ 공유 물품의 현황이 정확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댓글창에서의 제안을 수용하여 누구나 물품 현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학생통' 앱의 다음 버전을 개발할 때 반영하겠다고 대답하였다.

04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에 쓰인 '공유 물품의 대여자를 공개하는 것은'은 '수용하지 않는'의 목적어이다. 따라서 보조사 '은'이 '공유 물품의 대여자를 공개하는 것'이 주어로 사용됨을 보여 주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㉔에서는 '어떤 일에 앞서서'를 의미하는 부사 '우선'을 사용하여, '학생통 앱을 이용하면서 느낀 장점'을 후술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앞서서 작성하고자 함을 나타내고 있다.

② ㉠에서는 단어, 구, 절, 문장 따위를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 부사인 ‘그리고’를 사용하여, 앞선 내용에 이어서 학생통 앱의 기능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진술하고 있다.

③ ㉡에서는 앞말의 행동을 하거나 앞말의 상태가 되기를 바람을 나타내는 보조 동사 ‘하다’를 사용하여, 공유 물품의 대여자를 앱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⑤ ㉢에서는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시인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거나 조건을 붙여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 ‘-지만’을 사용하여, 누구나 공유 물품의 숫자를 앱에서 수정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구현했을 경우 장난으로 숫자를 수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말하고 있다.

06 통합 본문 218~221쪽

01 ③ 02 ④ 03 ⑤ 04 ③

01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진행자의 다섯 번째 발언에서 화면을 보지 못하는 청취자도 귀를 기울여 노랫말을 들어 달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해당 방송 이후에 노랫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진행자의 첫 번째 발언에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청취자 참여형 라디오 방송’이라는 ㉠의 특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 ② 진행자의 첫 번째 발언에서 앱을 활용해 ㉡를 시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 ④ 진행자의 여덟 번째 발언에서 ‘청취자들이 주신 점수와 현장 판정단이 주신 점수를 집계하는 동안 방송 참가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 ⑤ 진행자의 마지막 발언 중,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방송인 만큼 다음 주에도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라는 발언에서 ㉢의 특성을 바탕으로 시청자와 청취자의 방송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02 매체의 유형에 따른 특성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의 ‘가창력 뽑내기’ 순서에서는 도전자가 ‘풀따기’라는 자작곡의 반주에 맞추어 노래 부르는 모습을 노랫말 자막과 함께 화면에 보여 주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방송 시작 인사’ 순서에서는 진행자가 첫 인사말을 하기 이전에 방송 시작 음악을 틀어 주고 있다.
- ② (가)의 ‘현장 판정단 소개’ 순서에서는 화면에 현장 판정단의 모습을 비추며 인사말을 전달하고 있으나, 효과음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 ③ (가)의 ‘방송 순서 소개’ 순서에서는 방송 순서에 대한 진행자의 안내 발언과 화면의 자막을 활용하여 방송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 ⑤ (가)의 ‘점수 공개’ 순서에서는 (나)의 계획을 반영하여 도전 실패에 따른 효과음을 제시하고 있다. ‘비록 효과음이긴 하지만 방금 들린 탄식 소리’라는 진행자의 발언을 통해 도전 실패에 따라 탄식 소리가 효과음으로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03 매체 언어와 개인적·사회적 소통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도레미’와 ‘산악’ 모두 도전자에게 발언 시간을 길게 주지 못한 것이 진행자의 잘못이 아니라 방송 시간의 제한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므로, ‘산악’과 ‘도레미’가 방송 진행자의 태도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솔로’는 자작곡을 부른 영상을 어디에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기린’의 질문에 방송에서 진행자가 안내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미도’는 글의 목적에 따라 말머리 선택에 유의해 달라고 언급한 방송에서의 안내에 따라 ‘기린’에게 올린 글의 말머리를 수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 ③ ‘해금’은 현장 판정단을 선발할 때 게시판 이용자 투표에 많이 참여한 신청자를 선발한다는 방송에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미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④ ‘도레미’는 은둔가수가 가수왕 도전에는 실패했지만 멋진 노래를 들려준 것에 대해 감사해하는 ‘우륵’의 반응에 공감함을 표현하고 있다.

04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의 '자'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남의 주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하는 감탄사로, '도전자'에게 노래를 부를 것을 재촉하려는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다. 진행자는 '자'를 사용하여, 이어질 순서인 '가창력 뽐내기'에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는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이 가능함을 뜻하는 '-ㄴ 수 있-'을 사용하여 오늘 방송 순서를 보이는 라디오 화면의 자막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다.

② ㉠에서는 그 수가 예상보다 상당히 많음을 나타내는 부사 '무려'를 사용하여 '도전자'가 예선에서 받았던 점수인 96점이 상당히 높은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④ ㉠에서는 미래의 일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도전자'의 자작곡을 듣는 일이 이어질 예정임을 드러내고 있다.

⑤ ㉠에서는 뒤에 나오는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인 '만큼'을 사용하여, 다음 주에도 많은 신청을 부탁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라디오 가수왕'은 시청자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방송임을 들고 있다.

3부 | 실전 학습

실전 학습 1회

본문 224~235쪽

01 ⑤	02 ④	03 ④	04 ②	05 ②
06 ②	07 ⑤	08 ③	09 ②	10 ①
11 ①				

01 국어의 음운 변동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그대로 연음되는 경우'의 뒤따르는 형태소 '이, 으로, 을, 에서'는 형식 형태소이고, '대표음으로 교체되어 뒤 음절 첫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의 뒤따르는 형태소 '있-, 없-, 알, 앓-'은 실질 형태소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그대로 연음되는 경우'의 뒤따르는 형태소에 받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섞여 있음을 감안하면 구분 기준이 되기 어렵다.

② '그대로 연음되는 경우'의 뒤따르는 형태소에 1음절인 것과 2음절인 것이 섞여 있음을 감안하면 구분 기준이 되기 어렵다.

③ '대표음으로 교체되어 뒤 음절 첫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의 뒤따르는 형태소에 의존 형태소와 자립 형태소가 섞여 있음을 감안하면 구분 기준이 되기 어렵다.

④ '대표음으로 교체되어 뒤 음절 첫소리로 발음되는 경우'의 뒤따르는 형태소에 모음이 양성 모음인 것과 음성 모음인 것이 섞여 있음을 감안하면 구분 기준이 되기 어렵다.

02 안은문장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는 명사절 '아이들이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안겨 있으며, 명사절 내에 생략된 문장 성분은 부사어가 아니라 목적어 '글의 내용'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는 명사절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렀음'이 안겨 있으며, 명사절 내에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② ㉡에는 관형사절 '그녀가 아침마다 (책을) 읽던'이 안겨 있으며, 관형사절 내에 목적어 '책'이 생략되어 있다.



③ ㉔에는 관형사절 ‘화단에 (꽃이) 핀’이 안겨 있으며, 관형사절 내에 주어 ‘꽃이’가 생략되어 있다.

⑤ ㉔에는 부사절 ‘먼지 하나 없게’가 안겨 있으며, 부사절 내에 생략된 문장 성분은 없다.

03 피동 표현과 사동 표현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치마가 바닥에 끌렸다.’의 ‘끌리다’와 ‘마음이 끌렸다.’의 ‘끌리다’는 둘 다 피동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옷이 조금 찼졌다.’의 ‘찼기다’는 피동사이고 ‘동생에게 종이를 찼졌다.’의 ‘찼기다’는 사동사이다.

② ‘산불이 금방 잡혔다.’의 ‘잡히다’는 피동사이고 ‘아이들에게 손가락을 잡혔다.’의 ‘잡히다’는 사동사이다.

③ ‘그의 소설은 사람들에게 읽혔다.’의 ‘읽히다’는 피동사이고 ‘글을 나에게도 읽혔다.’의 ‘읽히다’는 사동사이다.

⑤ ‘이야기의 끝이 보였다.’의 ‘보이다’는 피동사이고 ‘내게 선물을 보였다.’의 ‘보이다’는 사동사이다.

04 단어의 구성 요소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㉗ ‘안+밖’을 ‘안팎’으로 적는 것은 ‘안’의 옛말이 ‘ㅎ’ 중성체언이었기 때문이다.

㉘ ‘휘+쓸다’를 ‘휩쓸다’로 적는 것은 ‘쓸다’의 옛말이 ‘빨다’이었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㉙ ‘술+가락’을 ‘순가락’으로 적는 것은 한글 맞춤법 제29항에 따른 것인데, ‘ㅂ’ 소리가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과는 무관하다.

㉚ ‘뚝+아서’를 ‘도와서’로 적는 것은 ‘뚝다’가 ‘ㅂ’ 불규칙 활용 용언이기 때문인데, ‘ㅂ’ 소리가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과는 무관하다.

㉛ ‘비늘+질’을 ‘바느질’로 적는 것은 한글 맞춤법 제28항의 ‘ㄹ’ 탈락에 따른 것인데, ‘ㅂ’ 소리가나 ‘ㅎ’ 소리가 덧나는 것과는 무관하다.

05 중세 국어의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ㅎ’ 낱’에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뒤따른 경우이기 때문에

‘ㅎ’나’로 실현되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바닷’에 관형격 조사 ‘시’이 뒤따른 경우이기 때문에 ‘바닷’처럼 ‘ㅎ’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

③ ‘안’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뒤따른 경우이기 때문에 ‘안’으로’처럼 ‘ㅎ’을 이어 적어야 한다.

④ ‘나라’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뒤따른 경우이기 때문에 ‘나라’처럼 ‘ㅎ’을 이어 적어야 한다.

⑤ ‘길’에 ‘기’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뒤따른 경우이기 때문에 ‘길’로’ 실현되어야 한다.

06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방송에서 문제 상황이 일어난 지역을 특정한 것은 영화 칼슘으로 인해 가로수가 고사하는 문제와 해결책을 다룬 내용에서이다. 문제 상황을 지역별로 범주화하여 제시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진행자의 첫 번째 발화에서 살포된 제설제 양이 구체적 수치로 언급되었고, 기자의 첫 번째 발화에서는 서울의 적설량을 기상청 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③ 진행자와 기자는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④ 진행자는 첫 번째 발화에서 ‘오늘 눈이 내렸’음을 언급하며 문제 상황에 대한 진술로 연결하고 있다.

⑤ 기자는 굴착기 운전자, 토목공학과 교수, 나무 병원 원장 등의 전문가 및 관련 인물들을 인터뷰 대상으로 설정하여 문제 상황을 그 실태와 위험성, 부정적 결과 등의 측면에서 조명하고 있다.

07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㉔은 화면을 분할하여 인터뷰 장면과 인터뷰 대상자 발언의 중심 내용을 텍스트로 제시한 화면을 함께 보여 줌으로써 시청자에게 발언의 상황과 내용을 집약하여 전달하고 있다. 생략된 내용을 보완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㉔은 제설차가 보이는 화면을 배경으로 ‘제설제 사용, 이대로 좋은가?’라는 자막을 제시함으로써 뉴스의 중심 화제인 제설제 남용 문제를 집약하여 드러내고 있다.

② ㉔은 현재 사용되는 제설제의 비율을, 성분을 기준으로 표

현한 막대그래프로 제시하여 기자의 발화를 구체화하고 있다.

③ ㉔은 제설을 위해 염화 칼슘을 뿌리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인터뷰 대상자 발언의 주요 내용을 자막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㉔은 인터뷰 화면에 이어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 중 뒷부분의 내용을 이미지화하여 부각하고 있다.

08 매체 자료 수용의 관점과 가치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학생은 ‘눈에 대한 대비는 개인에서 시작’된다는 언급이 시사하는 해결책의 방향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관 주도의 제설 작업이 야기한 문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관 주도의 제설 작업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관’이 문제 상황을 야기한 주체인 상황에서 해결책에서 언급된 문제 해결의 주체가 ‘개인’으로 제시되어 있음에 주목하여 나타난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방송에서 다른 문제 상황의 피해 범위를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제시된 해결책의 실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
- ② 수용자의 적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대안의 구체적 실천 방법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지 않다.
- ④ 방송에서 사용한 용어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자신이 몰랐던 문제에 대해 알게 해 주었다는 점에서 방송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를 방송의 정보 전달 방식과 관련지어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09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㉖의 ‘들어온대요’에 쓰인 ‘-나데’는 ‘-나다고 해’가 줄어든 인용 표현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용 표현의 사용이 민원을 제기하는 주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㉔의 ‘예상됩니다’에는 피동 접미사 ‘-되-’가 쓰였는데, ‘예상하다’가 아니라 ‘예상되다’로 표현함으로써 예상의 주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 ③ ‘지난해 10월’이라는 과거의 장면이기는 하지만 박 기자의 발화는 현재 송출되고 있는 방송 화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

에 ㉔의 ‘모습입니다’에서는 현재형 종결 어미 ‘-니다’를 사용하고 있다.

④ ㉔의 ‘입었다는’에 쓰인 ‘-다는’은 ‘-다고 하는’이 줄어든 인용 표현으로, 앞서 인터뷰한 사람의 의견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이러한 인용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⑤ ㉔은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지만 굳이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는 지금의 방법이 최선의 방안이 아닐 수 있다는 발화자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10 매체 언어의 의미 전달 방식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희영’의 게시물 아래의 ‘수정하기’ 버튼은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게시물 수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은 찾을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희영’의 게시물 아래의 ‘좋아요’ 버튼과 같이 게시물에 반응할 수 있는 공감 표시 기능이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희영’의 게시물 아래의 ‘누리 소통망 공유’ 버튼을 통해 해당 게시물을 누리 소통망에 공유할 수 있다.
- ④ ‘희영’의 게시물 아래에는 대한민국 청소년 창업 경진 대회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가 제시되어 있다.
- ⑤ 누리집 화면 위쪽 오른쪽의 ‘공지 사항’, ‘활동 자료’, ‘생각 나눔’, ‘사진첩’과 같은 버튼은 게시물을 작성하여 올릴 수 있는 범주를 표시하는 것이다.

11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우리 동아리에 가입하면 대회 준비를 잘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할 수 있겠’다는 ‘희영’의 의견은, 포스터에서 동아리의 다양한 활동을 이미지화해서 제시한 부분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모집 대상의 요건으로 ‘창업 경진 대회 참여 희망자’라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필수적인 내용은 그대로 실는 것이 좋겠다는 ‘승준’의 의견에 따라 모집 기간, 방법, 담당자 및 연락처와 같은 필수 정보가 표시되었다.
- ③ 주요 활동을 시각적 이미지와 함께 제시하자는 ‘경운’의 의견에 따라 동아리의 다양한 활동이 이미지화되어 함께 제시되었다.

- ④ 인상적인 문구를 사용하고 문구의 글씨체나 크기, 배치에도 신경 쓰자는 ‘윤성’의 의견에 따라 포스터 상단에 문구를 배치하고 ‘창업’이라는 단어를 두드러지게 표현하였다.
- ⑤ 포스터를 보고 바로 신청할 수 있게 하자는 ‘정민’의 의견에 따라 QR 코드가 제시되었다.

실전 학습		2회		본문 236~247쪽	
01 ⑤	02 ①	03 ⑤	04 ①	05 ③	
06 ③	07 ④	08 ③	09 ①	10 ②	
11 ⑤					

01 파생어의 형성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신인 선수다운’의 ‘-답-’은 명사구와 결합하고 ‘특성이나 자격이 있음’의 뜻을 더하기 때문에 「2」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전문가의 글답지’의 ‘-답-’은 명사구와 결합하고 ‘특성이나 자격이 있음’의 뜻을 더하기 때문에 「2」에 해당한다.
- ② ‘그녀다웠다’의 ‘-답-’은 대명사와 결합하고 ‘특성이나 자격이 있음’의 뜻을 더하기 때문에 「2」에 해당한다.
- ③ ‘정다운’의 ‘-답-’은 형용사 ‘정답다’를 파생하고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하기 때문에 「1」에 해당한다.
- ④ ‘꽃다운’의 ‘-답-’은 형용사 ‘꽃답다’를 파생하고 ‘성질이 있음’의 뜻을 더하기 때문에 「1」에 해당한다.

02 품사의 특성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에서 부사 ‘엄청’은 ‘빠르게’를 꾸며 주는데, ‘빠르게’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에서 부사 ‘아주’는 관형사 ‘새’를 꾸며 준다.
- ③ ㉢에 쓰인 ‘또’는 단어와 단어를 이어 주는 접속 부사이다.
- ④ ㉣에 쓰인 부사 ‘별로’는 ‘않다’와 같은 부정어와 함께 쓰인다.

- ⑤ ㉤에 쓰인 ‘가끔은’은 부사 ‘가끔’에 보조사 ‘은’이 결합한 형태이다.

03 담화의 특성

답 ⑥

정답이 정답인 이유

㉠은 승철이 희수에게 연락을 하기로 한 목요일 밤을 가리키고, ㉡은 승철, 희수, 하경이 만나기로 한 토요일 오후를 가리킨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청자인 희수가 앉아 있는 벤치를 가리킨다. ㉡은 화자인 승철과 청자인 희수 모두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교문을 가리킨다.
- ② ㉢은 이어지는 대화에서 언급되는 국어 수행 평가의 주제에 대한 얘기를 가리킨다.
- ③ ㉣과 ㉤은 모두 ‘희수와 승철’을 가리킨다.
- ④ ㉤은 앞서 희수의 발화에서 제안된 ‘시청 누리집’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04 의문문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설명 의문문은 문장의 마지막 억양이 상대적으로 내려가는 특성이 있다는 설명에 비추어 볼 때 ㉠을 설명 의문문으로 이해하면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대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언제’에 대해 ‘다음 주’라고 대답한 것은 ㉡을 설명 의문문으로 이해한 결과이다. 만일 ㉢을 ‘여기를 또 오기는 어렵다.’라는 뜻으로 발화했다면 이는 수사 의문문에 해당한다.
- ③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한 것은 ㉣을 판정 의문문으로 이해한 결과이다.
- ④ ‘형이 어디든지 갈 수 있다.’의 의미로 ㉤을 말했다면 ㉤은 수사 의문문이며, 수사 의문문에서는 물음표 대신에 마침표를 쓸 수 있다.
- ⑤ ‘-노’는 일부 방언에서 설명 의문문에 쓰기 때문에 ‘뭐’에 대해 먹은 음식의 종류를 언급하여 대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05 중세 국어의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 포함된 문장은 설명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형 어미

‘-노’가 적절하다. ㉔가 포함된 문장은 설명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형 보조사 ‘오’가 적절하다. ㉕가 포함된 문장은 판정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형 어미 ‘-니잇가’가 적절하다.

06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연구원은 가족 구성원이 경제 활동을 포기하고 직접 간병에 나서는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사회 경제적 손실이 약 20년 후에 77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나, 경제적 손실 규모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진행자가 질문 방에 올라온 시청자의 질문에 대해 ‘이에 대한 연구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라며 답변을 요청하자, 연구원은 시청자의 질문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연구원은 인터뷰 영상 자료를 활용하여 전문가의 해결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 ④ 연구원은 고령화 추세로 인해 간병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제시하며, 이를 간병인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연구원은 한국은행 조사국이라는 출처를 밝히고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이 이 전문 기관의 보고서 내용임을 언급하여 간병비 부담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07 매체 수용자의 태도

정답이 정답인 이유

연구원은 아버지를 간병해야 하는 직장인 A 씨의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민준’은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생산성 높은 산업에 종사하던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고 비교적 생산성이 낮은 간병에 매달릴 때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기회비용의 개념을 활용하며 지적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찬호’는 연구원의 답변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을 뿐 연구원이 간병 임금 정상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공했는지 그 타당성을 점검하고 있지 않다.
- ② ‘찬호’가 연구원의 답변과 관련하여 간병 문제 해결을 위한 선행 요인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확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민준’이 연구원이 제시한 사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

답 ③

기는 하지만, 간병비가 증가하는 상황이 생산성 높은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더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여겨 그 이유를 추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민준’은 생산성 높은 산업의 종사자가 직장을 포기하고 비교적 생산성이 낮은 간병에 매달리는 것이 사회적 손실이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⑤ ‘지희’가 외국인 노동자가 간병에 투입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조사 자료가 신뢰성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8 매체 자료 수정 및 보완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슬라이드 2’에 대한 검토 의견에서 ㉔가 상위 항목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인 것은 맞지만, 이는 ‘슬라이드 3’의 ‘2. 해결책 제안’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슬라이드 3’의 ‘1. 문제 진단’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학생은 방송에서 다른 내용을 친구들에게 알려 줄 목적으로 슬라이드를 만들고 있다. 방송 내용을 전달하려는 목적과 발표를 위해 만든 슬라이드의 내용에 적합하게 자료의 제목을 ‘간병 문제의 실태와 해결 방안 모색’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슬라이드 2’에 제시된 발표 내용과 이미지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재의 이미지를 간병비와 관련된 이미지로 교체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외국인 노동자에게 한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은 방송에서 언급되지 않았고, ‘슬라이드 3’의 내용과도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 ⑤ ‘슬라이드 4’의 제목 부분의 기호가 ‘슬라이드 2’나 ‘슬라이드 3’의 동일한 부분의 형태와 다르게 제시되었으므로 이를 통일하는 것이 적절하다.

09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는 신문의 칼럼으로, 표제인 ‘AI가 일자리를 뺏는다? AI는 ‘창의적 협업’의 동반자?’를 통해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와 미래에는 사람과 AI가 창의적으로 협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공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AI와 관련된 예가 제시되어 있지만, 그 예들이 AI와 인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2문단과 4문단의 예시는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 있는 견해를 소개한 것이고, 1문단과 5문단에는 특별한 예가 소개되지 않았다.

③ 단순노동으로 이루어진 직업이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지만, 이를 직업군별로 나누어 안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1문단의 끝에서 질문을 하고 이후 답을 제시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 방법이 이미 AI로 대체된 인간의 직업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이 글은 AI의 변화를 순차적으로 드러내는 목적을 지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문단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구성하지 않았다.

10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 (나)에서는 모두 인간이 AI에게 직업을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AI로 인해 밀려나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면 2’에서는 AI에게 넘겨주려는 미래의 직업을 이미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직업 중 소멸되리라고 예측되는 직업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배경 음악 또한 AI로 인해 인간이 잃게 되는 직업이 점점 늘어나는 부정적 상황에 어울리도록 긴장되는 분위기의 음악을 활용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1문단에서 제시한, AI가 만든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 놀라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을 (나)의 ‘화면 1’에서 인간이 그린 그림과 AI가 그린 그림을 나란히 배치하여 비교함으로써 그 완성도가 거의 유사함을 드러내어 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③ (가)에서 AI의 발달에 의해 인간의 일자리 중에 사라지는 것이 생긴다고 한 내용을 (나)의 ‘화면 2’에서 수치가 표시된 그래프를 활용하여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가)의 3문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AI와 인간의 상호 작용에 관한 두 가지 시각을 (나)에서는 ‘화면 3’과 ‘화면 4’로 나누어 각각 하나씩 제시함으로써 정보 간의 대등한 관계를 부각하고 있다.

⑤ (가)에서 인간과 AI의 상호 작용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나)에서는 시각 자료와 문자 언어, 그리고 내레이션을 활용하여 ‘화면 3’, ‘화면 4’, ‘화면 5’에서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정보를 복합 양식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1 매체 언어의 표현 방법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⑥에 쓰인 ‘-려면’은 ‘기차를 타려면 서둘러야 한다.’에서와 같이 ‘어떤 의사를 실현하려고 한다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반면 ‘-면’은 ‘불확실하거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가정하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창출하면’을 ‘창출하려면’으로 바꾸어 표현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함.’의 뜻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 쓰인 ‘급-’은 ‘매우 급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② ㉡에 쓰인 ‘-게 되는’은 피동 표현인데, ‘잃는’과 비교해 ‘잃게 되는’이라고 쓰면 피동의 의미가 드러나 어쩔 수 없이 당하게 된 상황을 표현한다.

③ ㉢에 쓰인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④ ㉣에 쓰인 ‘나가는’은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계속 진행함.’을 나타내는 보조 용언이다.